Weekly 공감

2009 04.29 No.09(통권 110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뮤지컬 황태자 조승우 ‘民生 쫄병일기’

기획특집 勞使의 아름다운 동행

눈에 확 띄는 ‘生生경제 국민 아이디어’ 총집합

‘소녀시대’ 유리 “자전거로 달려요! 눈이 부셔~ Gee Gee”

공감 인터뷰 ‘법의 날’ 맞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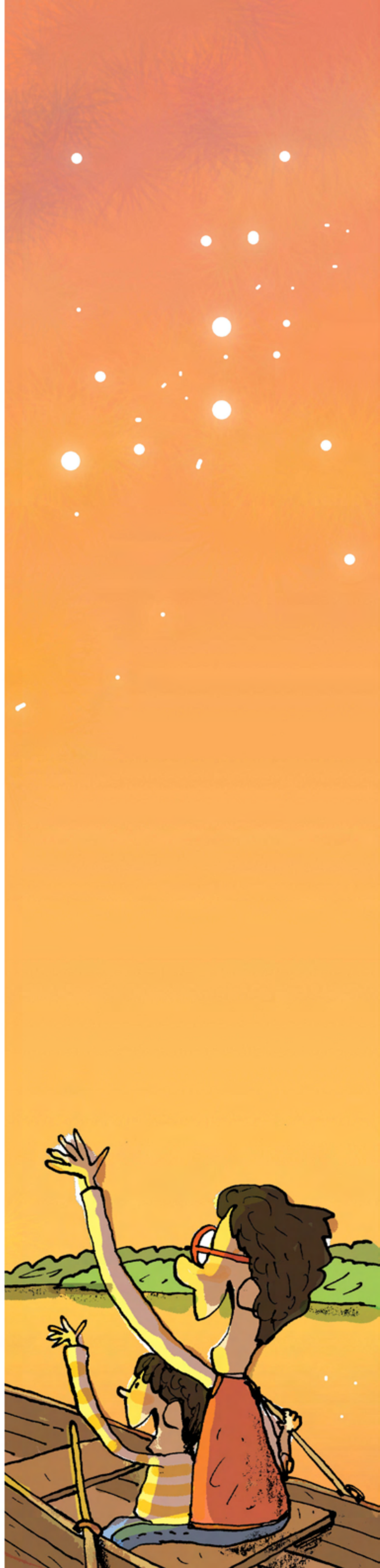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德治가 아니라 法治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원래 법의 날은 5월 1일이었는데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고 하여 날짜를 바꿨다. 근로자의 권리신장이 법의 준수의례보다도 중시된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조차 헌법과 국회법, 형법을 무시한 채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시위대에 앞장서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법의 날 행사가 연중 있어야 할 이유다.

이번 법의 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교육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법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조차 전과자가 많은데 이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복권되어 총선에 입후보해 당선된 것이다.

신상필벌이 법치주의 형사법의 원칙이요, 법치행정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어야 한다. 행정이나 입법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면 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의와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 자유, 평등,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은 헌법재판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

법의식은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국민은 법률이 약자를 처벌하고 강자를 보호한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 법이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치보다는 덕치(德治)를 중시해왔다.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은 윤리적으로는 깨끗하다는 주장을 하며 집권했는데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화신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법치는 사람의 권력남용을 막아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기도 하나 국민에게는 자유, 평등, 정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규범이다. 국민은 법률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장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善人)이라고 생각하지만, 악(惡)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은 서로 늑대처럼 되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의 법의식과 권리의식이 한층 신장되도록 법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법이 사회악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부는 그동안 법과대학을 육성해 연간 1만명의 신입생이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설로 4천명가량의 신입생이 줄게 됐다. 법학생 수를 늘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법률과목을 부과해 법의 생활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G

Contents

Weekly _ 2009. 04. 29 _ No. 09(통권 110호)



24



42



32

기획특집

노사의 '아름다운 飛行'

노사관계가 과거 투쟁 중심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공감대가 각 사업장마다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이 '위기 극복 노사공동 성명서'를 앞다퉈 채택하는가 하면, 노조는 임금 등을 양보하고 있다. 사측은 직원들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는 등 양보와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Weekly 공감 **발행일** 2009.4.2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668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7호(4월 15일자)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나라사랑'을 다룬 기획특집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7호에 실린 기사들이 다양해서 정말 좋았답니다. 기획특집으로 실린 '대한민국 사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애국심을 가지게 된다는 걸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명사 10인이 말하는 '나라사랑'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걷고 싶은 길 임실 장산~순창 장구목 섬진강 물길'도 좋았습니다. 김용택 시인 덕분에 조금은 알게 된 곳이지만, 이번 기사를 읽고 나서 꼭 한 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_ 최미숙

"명사 10인이 말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여러 인사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중 김수현 작가의 '각자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에 특히 관심이 가더군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본분을 다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_ 이영숙

"제게는 '드림북' 소식이 참 고맙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꿈을 키워야 하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책 나눔'이 고맙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갈 아이들의 해맑고 즐거운 웃음이 반가워 행복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 아울러 일반 국민도 책 나눔과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_ 김천곤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 '옆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 혼수상태에서 구출된 사연'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유케어(u-Care) 서비스'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수년 전 혼자 사시는 외삼촌을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119대원들,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이동침대로 신속히 옮겨주시는데…. 이런 분들 월급 좀 많이 줬으면 해요!" _ datgle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도와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980년 10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를 강제 연행해 수사하고 사찰과 암자를 수색한 사건인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09년 9월 17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10·27법난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0·27법난으로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조계종 및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 종교단체)
방문접수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09:00~18:00)
우편접수 우편번호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 의 02-748-5555



최근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글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돈의 물줄기가 산업현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kj590711(김진철)

지난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권이 부실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가격 폭등으로 공장 터를 마련하지 못해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국내엔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물줄기가 부동산 투기장이 아닌 산업현장으로 가도록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자 수도 줄고 나라의 주춧돌도 다져지게 됩니다.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바로잡습니다 4월 22일자 〈Weekly 공감〉 No.8(통권 109호) 19쪽 본문 중 넷째 줄 '대표번호사'는 '대표변호사', 열아홉째 줄 '(사)한국협회사단협회'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공감 퍼즐

■	1	■	■	2	■
■			3		
4			■		■
■		■	■	5	6
7	■	■	8	■	
9		■	10		

정답을 적어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5월 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가로

3. 42.195킬로미터를 달리는 경주. 하프 OOO.
4.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군.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무대. 춘양목으로도 유명하죠.
5. 우리 민간신앙에서 집터를 지키는 지신(地神)이나 그 자리를 이르는 말. 이것을 높여 이르는 말로 '무슨' 대감이라는 말도 있죠. "OO를 모시다."
9.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다. "만물이 OO하는 봄이 왔다."
10. Home과 Company의 합성어. '가정과 같은 회사'라는 뜻으로, 기업체에서 노사 간의 화합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이 경영을 실천하는 곳이 많다죠. 〈Weekly 공감〉 이번 호 기획특집을 보시면….

세로

1.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투지 않고 쟁의하는 일 없이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1950년대 초 총파업으로 노사 대립이 회사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체득했다. 그 후 55년간 OOOO을 이루면서 무분규를 지속, 마침내 제너럴모터스(GM)를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
2.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름. 최근에는 이곳과 조달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코너'를 만들었다네요. '국가시장'을 순우리말로 바꾸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g2b.go.kr.
6. 옷에 달려 있는데, 지갑도 넣고 휴대폰도 넣고 손수건도 넣고 자질구레한 소지품도 넣고…. "오늘은 OOO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저녁을 간단하게 먹자."
7.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감. 너도 살고 나도 살고(win-wi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OO의 물결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8. 주로 야구에서 쓰는 용어. 주자가 홈(Home)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비 팀 야수가 타자가 친 공을 홈플레이트(Home Plate)쪽으로 송구하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OO이 되지요.

〈Weekly 공감〉 7호(4월 15일자)의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4 나라사랑 6 벌써 7 애정 8 대한민국 9 가시리
세로 1 글로벌시대 2 누나 3 화랑 5 사가정 7 애국가

당첨자
한유림(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황호민(충남 논산시 취암동)
정소영(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은하(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김경남(경북 영주시 휴천2동)


1

저 흐드러진 꽃내음 봄이 왔네, 봄이 가네

고양에서… 태안에서 꽃박람회

봄의 향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꽃 축제가 한창이다. 4월 23일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각기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서 동시에 문을 열었다.
5월 10일까지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24개국의 진귀한 꽃들을 전시하고, 5월 20일까지 열리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바다와 꿈과 관련된 꽃들을 선보인다. 이들 박람회는 봄의 전령과 함께 찾아온 꽃의 여신 플로라가 향기로운 수채물감을 온통 뿌려놓은 듯하다.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이 꽃향기에 흠뻑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음 나눌 곳 없는 외로운 이들도, 높은 취업문을 두드리다 지친 젊은이도, 기름유출 사고로 한숨짓던 아주머니도 꽃길에 잠시 멈춰 세상 시름을 잊는다.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2



1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어린이들이 만발한 꽃을 감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 일산 호수공원으로 꽃구경 겸 봄 소풍을 온 어린이들.
3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절경으로 꼽히는 꽃대궐.
4 2009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의 꽃동상.
5 색색 튤립이 봄맞이를 나온 시민들을 반기고 있다.
6 태안반도의 바닷가를 따라 장관을 이룬 유채꽃 물결.







'법질서 바로 세우기' 김경한 법무부 장관

"따뜻한 법치, 서민경제 보듬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리를 따져 법리(法理)대로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사회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요즘,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여념이 없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합법과 평화, 불법과 폭력의 경계를 '법의 칼'로 가름하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법의 날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은 1895년 갑오개혁의 개혁안에 따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날입니다. 법의 날을 정한 뜻은 모든 국민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날이 올해로 46회를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아직 법치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집단의 힘이나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오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전국적 시민운동입니다. 국민 스스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고송, 슬로건을 만들고 전국에 법질서시민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법질서 확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명예시민기자단인 법사랑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솔로몬로파크도 개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신 '선플(좋은 댓글)' 달기 운동도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일환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된 반면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의 폐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가면을 쓴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자살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이를 개선해보려고 법무부가 선플 달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올해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법치'를 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엄정한 법집행으로 기본질서를 복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불의의 범죄로 피해를 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회생과 파산, 중소기업 지원 등 법무정책 각 분야에서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한 법무부 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법무부도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약 6백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벌금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아주거나 기소유예하는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폭력시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 대다수가 지난해 촛불시위를 겪은 다음 불법 폭력시위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등 아직도 시위대의 폭력행위가 빈발해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야간 집회와 시위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야간집회나 시위의 경우 폭력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단속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처럼 야간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市)단위에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나 불가리아, 러시아, 일본 등도 법이나 관행을 통해 일정 시간 이후의 야간 집회를 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법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이십니까.

올 한 해는 지난날 많은 손상을 입은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복원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이나 포퓰리즘이 미래를 향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또한 법무정책 각 분야에서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따뜻한 법치'를 위해 애쓰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을 사흘 앞둔 4월 22일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서울 신용산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개혁 열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소명의식 없으면 새 시대 대비 어렵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위기 극복 후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가를 위하는 소명의식 없이 감독기관에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경영을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는 민간기업 CEO처럼 여러분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4월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CEO들에게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안주하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공기관장 71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한 이날 워크숍에서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실적과 해당 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을 청취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회자로 나선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특히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혁소프트웨어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기관통합 · 인력감축 조직 슬림화

그동안 여섯 차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종합해 보면, 1백29개 공공기관 2만2천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이는 공기업 전체 인력의 12.7퍼센트에 해당한다.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의 민영화와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또한 4대보험 징수를 통합하고,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기능조정도 22건에 달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인턴을 1만2천명 채용하고, 초임 인하를 통해 채용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2백69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진화 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원 감축의 경우 1백29개 기관에서 2만2천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4월 17일 현재 91개 기관에서 1만4천명을 줄이는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38개 기관 8천명은 5월 말까지 줄일 예정이다.

민영화와 지분매각의 경우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완료했고,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전반적인 시장여건 악화에 따라 매각절차가 지연



되고 있는 상태다.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기관 통합의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됐고, 코레일 트랙과 엔지니어링, 전기 등이 코레일 테크로, 코레일 개발과 네트웍스가 코레일 네트웍스로 통합해 출범했다. 이로써 7개 기관이 3개 기관으로 통합됐다. 특히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선진화 발표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단기간 내에 통합기관을 출범시킨 우수사례로 꼽혔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18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통과 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1개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인턴 채용, 1분기에 목표의 92% 달성

기관 폐지의 경우 5개 대상 기관 중 노동교육원과 코레일 애드컴 등 2개 기관의 폐지를 완료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원을 자율적으로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부사원 1천명을 고용한 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우수 추진사례로 꼽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초임 삭감을 추진해 고통분담에 앞장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노사 협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정원과 조직을 일시에 감축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우수 공기업 선진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코트라(KOTRA)는 청년인턴 1백명을 선발해 이 가운데 근무성적 우수자 2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기업 선진화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인턴 채용의 경우 1분기까지 채용목표 1만2천명 중 1만1천명을 채용해 목표 대비 진도율이 92.2퍼센트를 기록했다.

공기업 선진화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인턴 채용의 경우 1분기까지 1만2천명 채용목표 중 1만1천명을 채용해 목표 대비 진도율이 92.2퍼센트를 기록했다. 대졸 초임 인하는 초임 연봉 2천만원 이상 2백69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마쳤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기업 선진화 성공이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에 달려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는 공기업 선진화가 아직도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자성도 있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 'CEO들이 낮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기업 선진화 성공이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에 달려 있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1개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은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고용시장의 왜곡까지 야기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졸초임 인하는 잡셰어링보다는 저위험·고보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고, 일부 참석자는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과 성과급 비중 확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을 개인별 실적과 연계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현 시점을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면서 핵심 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의 진화'를 제시했다.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방만경영 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미약하며, 이러한 사례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법과 원칙의 확립' '국리민복'의 감사 운용기조를 확립하고,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하게 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엔 철퇴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현 시점을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면서 2기 핵심 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의 진화'를 제시했다.

3대 거품 빼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해 이른바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방만경영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 수석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를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 행태에 대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과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을 모색할 것 등을 주문했다.

워크숍을 개최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행사는 특별한 형식 없이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주요 공기업들이 선진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영혼의 소리, 대통령의 눈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홀트일산요양원을 찾았다.
장애인합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노래를 온몸으로 부르자
대통령 부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로 화답했다.

"우리 노래를 대통령께 들려주고 싶어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연이 담긴 편지 한 통을 전해 받았다. 발신인은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요양원의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였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소중한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9일 아침 일찍 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바로 부인과 함께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했다. 6명의 장애아동들이 4월의 신록처럼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부부를 맞아들이자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참 예쁘다"며 인사말을 건넨 후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다.

장애인 생활관인 '린다의 방'에 도착한 이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해맑게 웃는 세 살배기 윤성이였다.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인 채로 태어난 윤성이는 최근 수술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윤성이를 안고 "수술이 잘됐구나"라며 함께 기뻐했다. 요양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며 대화를 나눈 이 대통령 부부는 어느새 손자 손녀 재롱에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들도 신이 났다. 불편한 몸을 뒤로 돌려 '휠체어 운전기사'를 기꺼이 맡아준 이 대통령 부부에게 행복한 눈빛을 보냈다.

"위로하러 왔다 위로받고 갑니다"

장애아동들과 즐거운 데이트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야외 공연장으로 향했다. 죽죽 뻗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공연장에는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단원들이 하늘색 깃에 흰색 세일러복을 입고 '특별한 초청객'을 반갑게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와 동행한 사람들이 소박한 야외 '객석'에 앉자 장애인합창단원들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영혼의 소리'를 온몸으로 발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 대통령 부부에게 들려준 노래는 두 곡. 먼저 뇌병변 장애로 발음이 거의 되지 않는 한 여자아이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외면을 하네요"라고 노래하자, 김 여사가 먼저 눈물을 쏟았다. 눈시울을 붉힌 채 애써 눈물을 참고 있던 이 대통령도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곧이어 두 번째 곡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가 흘러나오자 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장애인합창단의 노래가 경기 침체로 힘든 국민들의 마음과 연결시켜준 것일까. '대통령의 눈물'은 신문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멀리 재일교포에까지 번져나갔다.


청와대 제공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명박 대통령.

공연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애인합창단원들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가슴 속, 영혼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노래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안고 떠납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많은 생각 중의 일단을 공개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G

글 · 정지연 기자

“쫓기고 있다” SOS 22분 만에 해적선 무력화

소말리아 파병 청해부대 첫 임무 승전보




문무대왕함이 바라보이는 해상에서 고속단정에 탑승한 청해부대원들이 검색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해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링스 헬기의 위용.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우리 상선에 대한 호송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임무 착수 하루 만에 해적선을 물리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창군 사상 첫 전투함 파병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월 17일 선박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가 예멘 남쪽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덴마크 상선으로부터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는 긴박한 구조 요청을 받은 즉시 링스(Lynx) 헬기를 출격시켜 해적선의 피랍기도를 22분 만에 완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멘 남쪽 60해리(1백10킬로미터) 해상에서 동진 상운 소속 ‘파인갤럭시’(1만2천톤급)호를 호송 중이던 문무대왕함은 덴마크 국적의 상선 ‘퓨마’(2천1백20톤급)호로부터 긴급 구조신호를 받았다. 퓨마호는 국제상선공통망(무선교신망)을 통해 “해적선에게 쫓기고 있다”는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 요청을 접한 문무대왕함은 퓨마호가 청해부대 후방 35해리(63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 오후 2시 30분쯤 “우리가 링스 헬기를 출동시킬 테니 해적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속력으로 항해하라”고 퓨마호에 연락했다. 문무대왕함은 곧이어 연합해군사령부(CTF-151)에 출동을 통보했고, 동시에 링스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링스 헬기는 출동 17분 만인 오후 2시 47분쯤 현장에 도착, 퓨마호에 접근하는 해적 자선(子船)을 포착하고 즉각 경고사격 태세에 돌입했다.

해적들은 우리 해군 링스 헬기의 위협에 승선 시도를 포기하고 모선으로 도주했다. 이후 링스 헬기는 해적선이 퓨마호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더 이상 해적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작전을 펼친 다음 오후 3시 48분쯤 문무대왕함으로 복귀했다.

해적 공격에 취약한 1백60여 척 호송 담당

이 과정에서 CTF-151 소속 미 해군 게티스버그함의 작전용 시호크(SH-60) 헬기가 현장에 도착, 우리 링스 헬기와 해적퇴치 연합작전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해적들이 물러난 후 퓨마호 선장이 우리 문무대왕함에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히 해적을 물리쳐줘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는 4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벨기에로 향하는 파인갤럭시호 호송을 시작으로 임무를 개시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입구에서 지부티 해역까지 선박 호송임무를 맡고 있다. 아덴만을 통과하는 우리 국적 선박은 연간 5백여 척이며, 이 중 해적공격에 취약한 선박은 1백50~1백60여 척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이 위기 탈출 대안

글 ·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2006년 제정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외주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처럼 현행 비정규직법이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는 올해 7월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2년을 초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1백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대량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용사정 악화 시점서 가장 합리적 방안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당초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해고를 초래하게 된 상황에서 보완책만으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재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선량한 사업주가 법 개정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며, 나아가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뢰이익을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 뿐 그들에 대한 보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은 정부가 반드시 경청해야 할 주장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보완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갑작스레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법이 당초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 해고를 초래하게 된 상황에서 보완책만으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즉, 다양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냉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고육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냉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같은 갑작스런 궤도 수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바탕 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보호장치(Adequate Safeguard)를 제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G

동아DB



생생경제 공모전 우수 제안 1백개 선정

KTX 역세권 개발 등 아이디어 톡톡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도 한자리에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한 걸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그러한 시너지 축적의 장(場)이다.

정부가 실시한 '생생(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는 모두 9천2백23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대통령상을 받은 '우수 아이디어 베스트 7' 등 우수 제안 1백 개가 선정됐다.

4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박사가 제안한 '역세권의 특성화 개발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 베스트 7'에 뽑힌 제안은 △이상용 씨의 '지자체 9백96개 해외자매도시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장태래 씨의 '공공시설 여유 공간에 민간 태양광 발전' △곽현식 씨의 '가축 분뇨를 활용한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 △유디아이도시디자인의 '4대강 풍경 찾기를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 △경남 김해시의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는 에코트리 프로젝트' △박희용 씨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인증 시스템 도입' 등이다. 대상을 받은 오 박사는 "2004년 KTX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지면서 물자와 사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의료, 쇼핑 등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자체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역세권 특성화 개발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모작 9천여 개… "정책반영 힘쓸 것"

우수 아이디어 중 이상용 씨의 제안은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각 지자체의 해외 자매도시를 상대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다. 장태래 씨의 제안은 부지 확보가 쉬운 공공시설물의 옥상이나 여유 공간 등에 민간투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녹색성장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또 환경을 오



염시키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개발, 농가소득을 늘리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곽현식 씨)도 있다.

유디아이도시디자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해 '4대강 풍경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량디자인을 특화해 4대강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김해시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네티즌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방식으로 '에코트리(Eco-Tree)' 숲을 만들고 이에 참여한 개인이나 후원기업에 마일리지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안을 냈다. 박희용 씨의 제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 도시, 마을, 건축물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인증마크를 부여해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방안이다.

이 밖에 우수상(국무총리상)은 문인식 씨의 '학생복지주택 입지 강화로 대학가 하숙촌 대책 마련 및 경제 활성화' 등 6개 제안이, 장려상(관계부처 장관상)은 이광우 씨의 '녹색기술경영시스템 통합제정' 등 12개 제안이 차지했다. 또 박지영 씨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용의 조기집행' 등 75개 제안은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진행된 생생경제 공모에는 일반 국민과 대학, 연구원, 기업 등 단체 6백28곳, 개인 8천5백95명이 아이디어를 냈으며 응모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2천7백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녹색성장(1천9백45건), 지역경제 활성화(1천2백76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6백71건) 순이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수상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상식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은 가장 실용적인 '국민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서 국방의 의무 다하는

"충성! 이경 조승우,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지난해 말 입대한 배우 조승우가 서울지방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 소속돼 5개월째 군복무를 하고 있다. 화려한 가창력으로 뮤지컬 무대를 장악하던 톱스타가 이제 내무반에서는 걸레를 빨고 연극단에서는 음향·조명을 담당하는 '쫄병'으로 변신했다.


동아DB

조승우는 서울지방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원으로 군복무에 임하며 독거노인 위문공연, 어린이 범죄예방 공연을 하고 있다.

흰색 경찰제복의 왼쪽 가슴에 달린 출입증에는 '조승우'라고 씌어 있었다. 사진 속 청년은 앞머리와 옆머리가 1센티미터 정도의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 영화 '말아톤'에서 봤던 초원이의 천진한 표정 그대로였다.

4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방송실에서 만난 조승우(30) 이경은 '초원이'처럼 말이 느렸다. 기자의 질문을 곱씹은 뒤 천천히 대답했다. 그에게는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군 생활 5개월째, 일반부대로 치면 이등병 신분이라 언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졸병이 무슨 인터뷰예요"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몇차례 찾아온 끝에 조 이경과 마주앉을 수 있었다. "군 입대와 동시에 서른이 됐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조 이경은 "부대 적응하느라 서른이 된 줄도 몰랐어요. 제대하면 꽉 찬 서른 한 살이겠네"라며 웃었다.

내무반 청소 땐 무조건 걸레당번

조 이경은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뮤지컬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인기의 절정에서 군 입대를 택한 조 이경은 입대 두 달 전 찍은 영화 스태프들도 모르게 조용히 군에 갔다. 그곳에서 전경으로 차출돼 서울지방경찰청의 '호루라기 연극단'에 선발됐다. 이 극단은 장애우와 독거노인 위문공연, 어린이 범죄예방 관련 공연을 하는 경찰 유일의 공연단체. 조 이경 외에 탤런트 류수영이 복무하고 있고, 연극영화과 출신 전경 13명이 소속돼 매년 1백50여 회 정도 공연을 다닌다.

13명의 단원 중 밑에서 세 번째인 조 이경은 고참들보다 나이가 예닐곱 살 정도 많다. 동료들은 이름 끝 자에 옹(翁)을 붙여 '우 옹'으로 부른다. 그래도 졸병은 졸병. 아침, 저녁 점호를 앞두고 내무반 청소를 할 때는 무조건 걸레 당번이다. 아무리 두꺼운 걸레도 물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는 데는 '귀신'이 됐단다.

사회에선 뮤지컬 스타였지만 군에선 이경의 역할이 있

다. 연극단의 음향과 조명을 담당하는 스태프, 난타 북치기, 야광봉 퍼포먼스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남는 배역이 있으면 전천후로 뛴다.

"여긴 스태프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배우 겸 댄서 겸 스태프죠. 음향이나 조명은 경찰에 와서 처음 배웠어요. 낮엔 공연하고 밤엔 레퍼토리 짜고 안무 연습하고… 바깥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라이언 킹'에서도 조이경은 주연격인 '심바'가 아니라 '해설 원숭이'를 맡기로 했다. 조 이경은 "앞에 서서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저에게 가장 맞는 캐릭터를 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조 이경은 3분 가까이 생각하다 "연애요"라고 답했다.

관람객의 탄성, "어머, 정말 조승우였어?"

"다들 아시는 분(배우 강혜정)과 헤어진 뒤 짧게 연애를 한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연애를 못 했어요. 주말에 선임들이 애인과 외출 나가는 걸 보면 참 부러워요. 좋은 인연 만나서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그날이 오려나…."

"마음만 먹으면 연애를 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것"이란 충고에는 "연애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스타가 아닌 전경으로 무대에 서면서 조 이경은 "앞만 보고 달려온 20대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경찰제복을 입은 조 이경에게 관객들은 냉정하다. 주 관객층이 어린이나 노인들이라 조 이경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팬들을 상대로 공연할 때는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고 재미가 없어도 관심 있게 봐주지만 아이들은 가차 없어요. 조금만 지루해도 '저 아저씨 재미없다'며 쏘아붙이죠. 무대에서 면박을 당하다 보면 내가 처음 연기할 땐 어떻게 했었나, 내 초심은 뭐였나를 생각하게 돼요."

새벽에 세면장에서 땀범벅이 된 속옷을 빨다 보면 이 모든 걸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추운 날 찬물에 빨래하면서 손이 여기저기 터지기도 했거든요.

지방공연에 갈 때면 조 이경도 앞뒤로 군장을 메듯 온몸에 공연소품을 짊어진 '보따리장수'가 된다. 전용차가 없어 택시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전국 곳곳을 돌다 밤 12시가 넘어 숙소인 서울경찰청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다.

"입대 전에는 지방공연 갈 때 비행기나 KTX 타고 편하게 다녀왔죠. 새벽에 세면장에서 땀범벅이 된 속옷을 빨다 보면 이 모든 걸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추운 날 찬물에 빨래하면서 손이 여기저기 터지기도 했거든요."



동아DB

4월 23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개최된 '녹색어머니연합 및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인 조승우.

여느 장병들처럼 조 이경도 전경생활을 하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놨다.

"누나(뮤지컬 배우 조서연)와 저, 어머니 세 식구가 살다가 지금은 누나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세요. 옆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쓰이죠. 관객으로 오신 어머니들이 '반갑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 가끔씩 짠해요."

4월 23일 오전 호루라기 연극단은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녹색어머니연합 및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에 공연을 갔다. 이날 아침도 소품상자를 끌어안은 조 이경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입대 전 성대결절 수술을 해 한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조 이경은 이날 오랜만에 노래를 선보였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삽입곡인 '디 임파서블 드림(The Impossible Dream)'이었다. 노래가 끝나고서야 "어머, 정말 조승우였어?"라는 어머니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40분 동안의 식전 공연을 마친 단원들은 나란히 무대에서 '충성'을 외쳤다. 동료들 사이에 선 조 이경은 체구가 가장 작았다. 하지만 짐을 챙겨 버스로 향하는 길, 그는 가장 큰 북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G

글 · 신광영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해우리해양환경교실 http://haeuri.kcg.go.kr



제4회 해양경찰청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일자	2009년 5월 5·16·23·27·30일
행사 장소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소재 지역 – 속초/동해/울산/포항/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서귀포/목포/군산/태안/인천
참가 대상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작품 소재	바다와 관련된 내용
부대 행사	함정 퍼레이드, 특공대 시범, 헬기축하 비행, 해양환경사진전시회, 관현악단 연주, 페이스페인팅 등
참가 방법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 해양경찰서에 우편,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제출 또는 행사당일 현장접수 가능(사전문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주최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주관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지역언론사, 시민단체 및 지자체

▶ 각 지역별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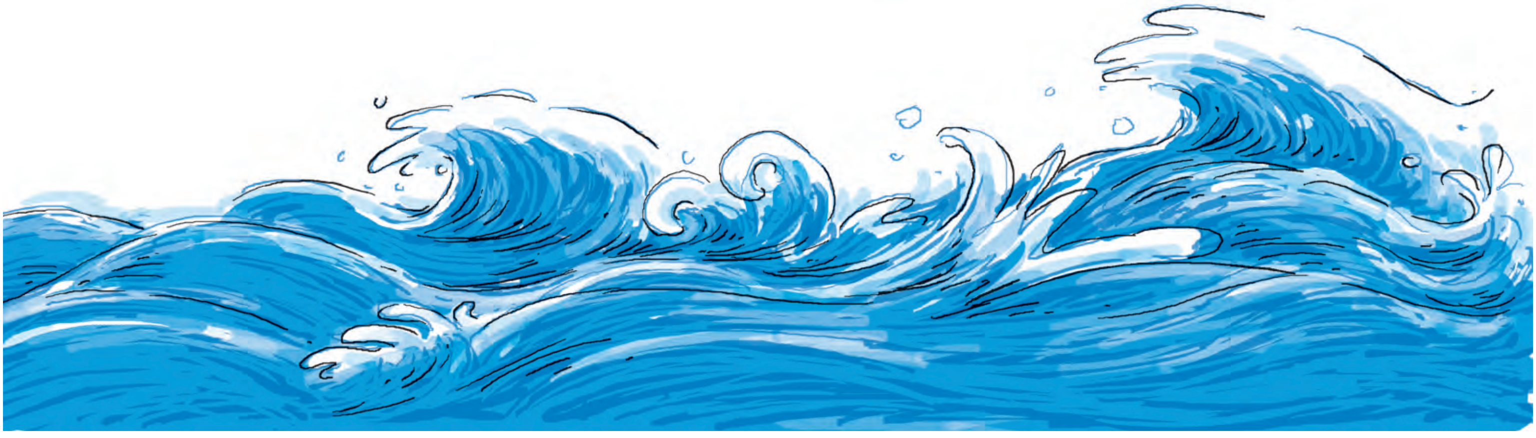
지 역	날 짜	시 간	장 소	접수기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전 화
속 초	5.16(토)	13:00-17:00	속초 엑스포광장	4.13-5.16	http://sokcho.kcg.go.kr	033)632-5250
동 해	5.16(토)	13:00-18:00	망상 컨벤션센터	4.20-5.16	http://donghae.kcg.go.kr	033)533-5150
울 산	5.16(토)	14:00-18:00	장생포 해양공원	4.13-5.16	http://ulsan.kcg.go.kr	052)260-5150
포 항	5. 5(화)	10:00-16:00	환호 해맞이공원	현장접수	http://pohang.kcg.go.kr	054)247-0416
부 산	5.30(토)	14:00-18:00	부산해양경찰서	4.20-5.30	http://busan.kcg.go.kr	051)405-6413
통 영	5.30(토)	14:30-18:00	충무 마리나리조트	4.20-5.30	http://tongyeong.kcg.go.kr	055)644-9874
제 주	5.23(토)	13:00-18:00	용담 레포츠공원	5.1-5.30	http://jeju.kcg.go.kr	064)759-5049
서귀포	5.23(토)	13:00-17:00	보목 하수처리장	5.1-5.30	http://seogwipo.kcg.go.kr	064)767-5140
여 수	5.16(토)	14:00-17:00	오동도	4.20-5.15	http://yeosu.kcg.go.kr	061)651-0725
완 도	5.16(토)	09:30-12:30	완도 해변가공원	4.16-5.16	http://wando.kcg.go.kr	061)555-5054
목 포	5.27(수)	10:00-17:00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원	현장접수	http://mokpo.kcg.go.kr	061)247-5052
군 산	5.16(토)	09:30-13:00	금강호 시민공원	4.13-5.16	http://gunsan.kcg.go.kr	063)467-5032
태 안	5.16(토)	14:00-18:00	몽산포 해수욕장	4.16-5.16	http://taean.kcg.go.kr	041)674-5052
인 천	5.30(토)	13:00-17:00	월미도 등 5개소	별도공고	http://incheon.kcg.go.kr	032)887-5050

| 기 | 획 | 특 | 집 |



손잡고 파고를 넘자
노사의 '아름다운 飛行'

노사관계가 과거 투쟁 중심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공감대가 각 사업장마다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이 '위기 극복 노사공동 성명서'를 앞다퉈 채택하는가 하면, 노조는 임금 등을 양보하고 있다.
사측은 직원들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는 등 양보와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상생도 진행되고 있다.
노사는 부부와 같다. 부부싸움이 잦으면 집안이 잘될 리 없다.
서로 손 맞잡고 노사화합의 건배를 외칠 때다.



노사 투쟁만 외치다간 깡통차기 일쑤

양보하면 상생한다

노사관계에 훈풍이 분다.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양보와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투쟁만 외쳐 얻을 것이라곤 가족의 밥줄이 걸린 직장의 폐업과 실직뿐이란 것을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아이아는 최근 자동차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자 4월 3일 노사 합의로 잉여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해고 자제를 통한 고용안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또한 시간외수당 15시간분 반납, 일반직 사원 임금 5퍼센트 반납 등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노사갈등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기업과 아무 상관없는 정치투쟁은 물론, 매년 춘투(春鬪)에서 하투(夏鬪)로 이어지는 임금협상 갈등으로 개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가 입는 손실이 막대했다.

그런데 최근 아이아의 경우처럼 노사관계에 훈풍(薰風)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십 년간 되풀이됐던 갈등의 노사관계가 위기 극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단체협상을 회사에 위임하거나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하는가 하면 '위기극복 노사공동 성명서'를 앞다퉈 채택하고 있다.

SK는 4월 8일 그룹 차원에서 'SK 한마음 한뜻 대(大)선언식'을 열고,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성과연동에 따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4월 18일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경공동 실천 결의식'을 가졌다. 웅진케미칼 노조도 4월 1일 임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고 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하는 '노사 한마음 선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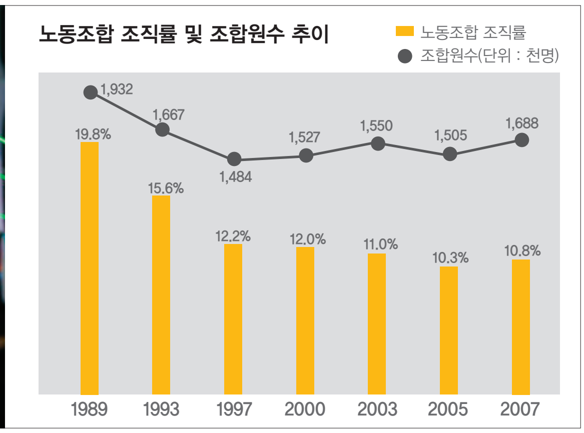
"노사는 동반자" 새 관계 자리매김

대한항공, 농심, 일진전기 등 다른 주요 기업들의 노조 역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사측에 임금·단체협상을 위임했다. 이에 회사는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LS산전은 노조가 임금협상을 회사에 일임하자 이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조가 임금문제를 회사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쌓여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사관계가 과거 투쟁 중심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양보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눔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GS칼텍스 노사화합 행사.



※ 2007년 노조 조직률이 높아진 것은 공무원 노조 조직률이 증가한 때문으로, 민간기업부문만 따지면 9.5퍼센트(2006년)에서 9.2퍼센트(2007년)로 낮아졌다.



노사관계가 과거 투쟁 중심의 대립관계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동반자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앞 왼쪽)과 차진철 노조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송영수 한양대 리더십센터장은 "신뢰관계는 엄청난 '소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해야 구축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을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 보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일찍부터 노사 간 소통이 잘 이뤄져온 기업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를 살리는 데 노조가 힘을 발휘한다.

김홍렬 코오롱 노조위원장은 회사 영업사원들과 함께 일본의 주요 고객기업을 직접 방문해 노조가 직접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거래처 1백30여 곳에 노조 이름으로 품질과 납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편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회사의 원가절감팀장을 맡아 매출과 영업이익을 20퍼센트 늘리는 데 한몫하기도 했다.

노사상생, 사내 넘어 하청업체까지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오롱은 지난해 지독한 불황 속에서도 영업이익 1천2백5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회사에서도 전 직원에게 '기본급 100퍼센트+1백5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김홍렬 노조위원장은 "투쟁만 외쳐서 얻을 것이라고는 가족의 밥줄이 걸린 직장의 폐업과 실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고, 조합원도 있다"고 상생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업 내 노사상생을 넘어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월급을 자진 삭감 또는 반납하는 대신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한 기업들도 많다. 나아가 노사가 합심해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지평을 사외로까지 넓히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을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 보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찍부터 노사소통이 잘된 기업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한다.

과거 노조의 이념 중심 강성투쟁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오롱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등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선진노동운동을 전개하는 제3의 노총 결성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2007년의 경우 민간기업 노조 조직률이 9.2퍼센트에 불과했다.

문갑생 다산정보연구원 고문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노사가 하나가 돼야 한다. 노조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사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도 노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나눔과 상생의 '新노사문화' 현장을 가다

친구처럼… 부부처럼… 가족처럼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던 노사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 | 모든 직원 000님으로 호칭 통일

4월 9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모레퍼시픽 본사. 10층의 구내식당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한 쌍의 남녀 직원이 닌텐도게임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 주위엔 동료직원들이 모여 응원을 하는데, 승패가 갈릴 때마다 환호와 웃음이 쏟아졌다.

손엔 맥주잔이나 칵테일잔이 들려 있었다. 게임을 구경하거나 옆 사람과 귀엣말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대학가의 바(Bar)에 들어온 느낌을 주었다. 식당 한쪽에선 바텐더가 현란한 몸동작을 선보이며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다. 저글링과 칵테일 셰이킹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칵테일에 불을 붙이는 불쇼가 펼쳐졌다. 순간 탄성이 이어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처럼 구내식당을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파티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직원이면 누구나 시간과 인원을 명기해 신청하면 신나는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굿타임 파티는 직원들의 창조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향상시켰다.

회사에서 전문 바텐더도 붙여준다. 이 회사 홍보팀 직원 주재홍 씨는 "'굿타임 파티'는 직원들의 창조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내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한 밤늦게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깜짝 간식제공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매월 1일 직원 생일 축하 이벤트도 연다. '다이어트 펀드' '금연 펀드' 등 직원들의 건강 챙기기에도 적극적이다. 여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다양하다.

아모레퍼시픽의 색다른 점은 또 있다. 오너인 서경배 사장을 직원 누구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서경배 님'으로 부른다. 아모레퍼시픽엔 호칭이 없다. 상대를 부를 때 직급을 부르지 않고 모든 호칭을 '님'으로 통일한다. 상하 직급의 구분 없이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마다 노조 조합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07년도 조합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진에 대한 신뢰(92퍼센트), 일터의 만족도(94퍼센트), 팀장에 대한 신뢰(91퍼센트), 동료에 대한 믿음(96퍼센트),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93퍼센트) 등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러니 노사 간에 갈등이 있을 리 없다. 1991년 이후 19년째 무분규를 지속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노사 공동의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04년엔 신노사문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사협력담당 임원과 노조위원장은 매일 티타임을 갖고 회사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노사 간 유대강화에 기여한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노사협력 공동선언을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5월 일찌감치 선포했다. 공동선언문에서 노사는 회사 경쟁력 강화, 종업원 고용안정, 근무환경·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합리적인 성과 배분과 종업원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열린 조직문화를



삼진제약은 사원들이 고객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회사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이성우 대표.

정착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유제천 인사총무부문 상무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통운 | 노사는 부부 같은 사이

"노사는 부부와 같아요. 부부가 싸움질만 하면 그 집안이 잘될 수가 없죠. 노조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최고경영자)가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직원)들을 잘 다독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한통운 차진철 노조위원장은 '노사 부부론'을 역설한다. 대한통운의 노사관계는 독특하다. 4월 16일 '노사 평화 선언'을 하면서도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전국 50개 지부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10퍼센트, 비용절감 10퍼센트, 안전사고 0퍼센트 등을 목표로 한 '텐 텐 제로' 운동을 펼쳤다.

대한통운 노조가 유난히 회사와의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출될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조가 먼저 임금삭감, 휴일근무수당 폐지 등 모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테니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다. 요즘 유행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노조가 먼저 '미수채권 회수 운동'과 '무사고 무재해 운동' 등을 펼쳤는가 하면, 회사 대출이 어렵게 되자 노조위원장 집까지 담보로 내놓았다.

이에 회사도 경영정보를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등 상호 간 신뢰를 쌓아나갔다. 전략경영회의 등 모든 경영회의에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참석하고, 노조 대의원대





행남자기는 67년 동안 노사분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3대째 근무하는 직원이 9명에 이를 정도로 가족 같은 회사로 유명하다.

회나 중앙위원회 회의에 사장이 직접 참석해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평사원 출신인 이국동 사장의 현장경영이 사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말단직원이라도 최소한 일년에 한두 번은 사장과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장은 현장을 자주 찾는다. 노조위원장 역시 모든 조합원과 일년에 서너 차례는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죠, 월급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노조위원장이나 사장과 직접 만나 세세한 회사 사정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애사심도 커진다”는 게 이 회사 경영관리본부 조정훈 과장의 이야기다.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투명경영으로 이해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잘 운영해 직원들이 2년 내에 동종업계 최고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대한통운은 아름다운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과거 법정관리 중에도 업계 1위를 굳건히 지켜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 2조원에 영업이익 9백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 삼진제약 | “구조조정 없다” 발표에 “연차 반납” 화답

삼진제약은 창립 후 41년간 노사 무분규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9년째 무교섭 임금협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인사관리팀 고상현 차장은 “회사가 1977년 제약업계 최초로 주5일제를 시행했을 정도로 사원복지에 신경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우 대표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대화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 경영을 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경영진이 “구조조정, 감원, 임금삭감 없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히자 노조는 연차휴가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쳐 경제위기와 불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윤 노조위원장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생산라인을 개선하고 근로자 시간 관리를 통해 약 1시간 정도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줄이기로 했으며, 향후 경제여건이 더 악화되면 근무시간 연장 등 다양한 생산성 강화 운동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우 대표는 전 직원 가족들에게 직접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사상생의 문화를 키워나가고 있다.

| 행남자기 | 67년 동안 노사분규 단 한번도 없어

도자기 전문업체인 행남자기는 회사 창립 이후 67년 동안 노사분규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2대째 근무하는 직원이 28명, 3대째 근무하는 직원도 9명이나 된다. 부부나 동서지간도 여럿 있다. 말 그대로 가족 같은 회사인 셈이다.



대한통운은 노사가 함께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국동 사장(왼쪽)과 차진철 노조위원장.

대기업에 비해 근로복지가 좋은 편이 아닌데도 행남자기 직원들의 애사심은 남다르다. 1994년 청와대로부터 '전국 우수업체 노조위원장 오찬'에 초청받은 행남자기 노조위원장이 오찬 중 일어나 "청와대에서 행남자기를 써달라"고 즉석에서 제품홍보를 해 1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일화는 유명하다.

지금의 노조도 자발적으로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평소 인기가 있던 도자기류를 모아 '한상 식기세트'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판매에 직접 나서고 있다. 연간 매출 목표액을 15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직원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에 3백여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지만 회사는 단 한 명의 해고자 없이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했다.

사원들도 임금동결과 함께 상여금을 반납하면서 고통을 나눴다. 또한 5·5운동(5s 실천, 5퍼센트 수율 향상, 5퍼센트 비용 절감, 5분 일찍 시작, 5분 늦게 퇴근)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제조경비를 줄여 연간 7억6천만원을 절감했다.

하지만 2001년 어려워진 경영여건 때문에 목포공장을 정리하면서 1백50여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다. 회사는 40여 명을 여주공장에 재취업시키고, 50여 명을 인근 다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주선했지만 나머지 60여 명은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김용주 회장은 15억원을 투자해 맛김회사(행남식품)를 설립, 이들을 재고용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을 내 가족처럼 책임지겠다는 의지에서였다.

김영호 노조위원장은 "외환위기 등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노조는 임금동결을 해주고, 회사는 최대한 인력감축을 자제하는 전통이 행남자기에는 있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5일 무파업, 임금동결로 이 같은 의지를 보였고, 회사 측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유지와 윤리경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유니크 | 노사 불신 씻고 함께 이웃사랑 실천

경남 김해시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유니크는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과 화의신청으로 한때 폐업 직전에까지 몰렸던 기업이다. 1998년 7월 외환위기 한파에다 노사 간 불신, 노노 간 분열로 존립위기에 빠진 것. 이후 회사는 화의절차 인가를 받았고, 2002년 11월엔 부산공장을 매각하는 등 회생의 길을 모색해 2003년 6월 화의를 졸업했다.

이는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회사와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이 노사협력에 의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손을 맞잡고 신뢰회복에 나섰다. 회사는 노조의 협력에 근로조건 개선과 종업원복지 향상으로 화답했다. 휴식공간 확대, 도서문고 설립, 체력단련실 마련, 직업병 예방,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권장 등을 적극 실시했다.

그 결과 노사는 2005년 6월 신노사문화 선포식을 갖고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정도로 돈독한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 영진 | 경영 사정 어려워지자 임금인상분까지 반납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진은 일찍부터 근로자 스스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근로자의 경영참여, 근무환경 개선,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노사상생 관계를 정착시켜왔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 1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5.2퍼센트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도 근로자를 중심에 둔 결단이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이번엔 노조가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3월 인상된 임금을 반납하는 임금양보안을 제시한 것. 이에 사측은 고용유지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또한 서승구 대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연봉을 20퍼센트 삭감했다.

권태훈 노조위원장은 "인상된 임금을 오히려 깎기로 한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조합원들도 다 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선히 받아들였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월급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회사 체육대회에서 직원들이 노사화합을 다지며 헹가래치고 있다.

회사는 사원사랑, 사원은 회사자랑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 CEO들은 불황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지침으로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꼽았다. 직원들의 마음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감원, 임금삭감 등으로 위축된 직원들의 '기(氣)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기업 CEO와의 만남 등 스킨십 경영에서부터 자신감 키우기 캠페인, 생일 챙겨주기, 칭찬 릴레이, 자녀 학용품 선물 등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LG CNS의 신재철 사장은 편지로 '홈퍼니(Homepany · 가정 같은 회사라는 뜻)'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IT회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CEO가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는 것이다.

우선 해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에게 사장이 직접 축하카드와 선물을 보낸다. 또한 업무 때문에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의 가족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를 꼭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위로카드를 보낸다. 승진을 하거나 출산을 해도 가족들에게 축하카드와 선물을 보낸다. 이 모든 것을 직원 당사자가 모르게 하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작업능률이 높아진다고 이 회사 재경서비스팀 김영란 팀장은 말했다.

LG텔레콤 정일재 사장도 올해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학용품세트 같은 선물과 함께 격려의 메시

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직원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S-오일은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최고경영진이 직접 쓴 축하카드와 함께 책을 선물하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점심을 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모비스 정석수 사장은 평직원들과 돌아가며 점심을 함께하는 'CEO 스페셜 런치'를 매달 한 차례 이상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회사의 경영 현안과 경영방침 등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챙기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현대백화점은 '직원을 웃겨야 고객도 웃는다'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웃음 되찾아주기에 나섰다.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의 경우 매주 금요일을 '스페셜 데이'로 정해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모닝커피데이나 직원들을 안아주는 프리허그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직원 가족도 내 가족… 가족의료혜택까지

코오롱 구미공장은 '행복테마파크'라고 불린다. 노사가 힘을 합쳐 분수대도 만들고 카페, 영화관, 도서실, 노래방 등 다목적 위락시설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사의 상생과 동행이 곧 노사의 행복'이라는 이웅렬 회장의 경영철학에 전 직원이 동참해 '공장'을 '행복일터'로 바꾼 것이다.

이 회장은 소소한 이벤트로 사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엔 직접 구미공장 외벽 페인트칠을 했는가 하면, '행복이 날아온다'는 꽃말을 가진 호접란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FnC코오롱, 코오롱패션, 캠브리지 등 그룹 패션 3사 직원들에게는 안마봉과 발 관리 세트를 선물했다. 의류매장 직원들이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한다는 점에 착안한 '직원 감동' 이벤트였다.

코오롱 배진원 차장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거창한 게 아니다. 작지만 세세한 관심과 스킨십 경영이 노사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마라톤으로 노사화합을 다지는 회사도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바다하프마라톤엔 9백명이, 올 3월 열린 환경마라톤엔 8백명의 직원이 참가했다. 회사 차원에서 마라톤에 큰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데다 직원들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즐기면서 해마다 참여 숫자가 늘고 있다. 마라톤엔 김태일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같이 뛰면서 땀을 흘리고, 인간의 한계에 함께 도전하다 보면 노사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끈끈함이 생긴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보낸 LG CNS 신재철 사장에게 직원자녀가 보낸 감사 편지.

마라톤이 끝난 후에는 노사가 함께 샤워도 하고, 식사와 간단한 뒤풀이도 한다. 성우하이텍 인사총무팀 전광현 대리는 "사장은 함께 마라톤을 할 뿐 아니라 취임 이후 전 직원의 크고 작은 경조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밖에도 일일호프에서 허물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등 스킨십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이 회사가 1988년 노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노사분규가 없을 정도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2007년엔 노동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2008년엔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성우하이텍 임직원은 마라톤을 같이하면서 땀을 흘렸다. 인간의 한계에 함께 도전하다 보면 노사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끈끈함이 생긴다. 노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노사분규가 없을 정도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 덕분이다.

엔씨소프트는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들을 위한 의료혜택으로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의료비를 집중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게도 입원 1회당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애견용품 전문 쇼핑몰 기업 '오도그'는 최근 직원들이 자기계발 및 심신단련에 힘쓰도록 자기계발비를 신설했다. 또한 아침 출근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누가누가 일찍 오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포상하는가 하면 나른한 오후시간에 간식과 함께 차를 마시는 브레이크타임을 마련해 오후 업무의 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회사 차유석 대표는 "기업이 어려우면 직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직원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까지 힘들게 된다. 직원 감동 프로젝트에서 나아가 가족 감동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결식아동 돕기부터 환경보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공헌이 기업가치 좌우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물결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선 것. 고통은 반이 되고 웃음은 배가 되는 아름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봄꽃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 현대자동차 |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현대자동차 노사는 울산 지역 저소득층 학생과 결식 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울산공장 총무실장 백경기 이사와 송두익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 등 노사 관계자는 지난 2월 9일 3억7천만원을 울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노사 사회공헌기금 2억2천만원과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과 회사, 임원 등이 모금한 성금 1억5천여 만원을 합한 것이다.

노사 사회공헌기금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은 울산지역 저소득층 신입 중학생 및 고등학생 4백명의 교복 지원금으로 전달했고 나머지 1억원은 학생들의 교통비로 지원했다. 또한 성금 1억5천여 만원은 지역 결식학생 4백40명의 연간 급식비 지원에 사용했다.

현대차는 3월에도 울산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의 외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노사 사회공헌기금 3천4백만원을 울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 3천4백만원 가운데 3천2백50만원은 최신형 외국어 학습용 전자사전 1백대를 마련해 지역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백명에게 주는 데 사용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월에도 결식학생 돕기 성금으로 1억여 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금 1억2천만원, 저소득층 학생 통학 교통비 1억원을 울산시교육청에 건넸다. 또한 지난해 말 겨울방학 기간에는 장애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달팽이학교'에 1천5백만원을, 올해 설날에는 불우이웃돕기에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 관계자는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처럼 지역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최근 노인성 난청으로 고생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골도(骨導) 전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연구원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난청 어르신들에게 골도전화기 1백50대를 노사 공동 부담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해 매년 골도전화기 지원 수량 및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골도전화기는 소리를 기계적 진동으로 바꿔 머리뼈를 통해 청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전달하는 '골도 진동자' 기술을 상품화한 것이다. 이 기술로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을 앓는 이들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최문기 ETRI 원장과 한주동 노조위원장은 "ETRI의 연구 성과물이 다소나마 지역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런 행사를 노사가 함께해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

노사 공동으로 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이벤트를 펼쳤다. 지난 4월 3일부터 4일간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2009 봄꽃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새봄맞이 문화나들이 행사를 연 것. 공사 직원 40여 명이 광주 서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우 10명, 광산구의 홀로 사는 노인 60명을 모시고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행사에 참가한 박봉임(82) 할머니는 "혼자서는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아 계절을 모르고 실내에서만 생활했다"며 "자식 같은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줘 지하철도 타보고, 예쁜 꽃나무도 구경했다"며 고마워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 회사 김대중 노조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소외계층 문화나들이 행사를 정례화해 문화, 예술 등 테마가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전 직원은 지하철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소 운영을 비롯해 아름다운 가게 운영,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 등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강원 홍천군의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위). 충청에너지서비스 전 임직원은 사랑의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 SK브로드밴드 |

지난 2월 13일 노사 공동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후원금 4천만원을 서울 중구청에 전달했다. 또한 중구청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66가구와 결연을 해 매달 5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봉사단을 발족한 SK브로드밴드는 '지구촌 행복한 홈스쿨'을 통한 교육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 |

지난 3월 30일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장애우시설 '영천팔레스'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노사는 함께 준비한 과일과 간식을 원생들에게 전달하고 시설을 청소하거나 함께 놀아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경북지역본부 노사는 2007년부터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지역 시설 방문, 봉사활동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봉사 활동인 밥 스타트 프로그램 및 다문화 존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하려는 노력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장애인시설을 찾아 원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밥 스타트 프로그램은 노숙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들에겐 점심 도시락을, 결식아동에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 기아자동차 |

노사합동 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월 13일 함께 준비한 연탄 3천2백장, 쌀(20킬로그램 들이) 1천6백여 포대, 라면 1천6백여 상자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강원 홍천군 일원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의료진도 참여했다.

| 롯데백화점 |

한편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인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품군별 대표 협력사 23개사와 '협력회사 상생경영 프로젝트–친환경 그린파트너십 협약식'을 진행했다. 그린파트너십은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동원해 중견·중소기업에까지 환경경영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공식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백화점은 협약식 체결로 의류, 잡화, 식품, 아웃소싱 등 분야별 핵심 협력사 23개사가 국제 환경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금을 오는 5월까지 지원한다. 롯데백화점은 '협력회사 STOP CO_2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각 업체가 폐기물 줄이기, 에너지 절감, 공정개선 등을 통해 물류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를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업계 최초로 '협력회사 환경경영 스쿨'도 운영했다.

정승인 롯데백화점 마케팅 부문장은 "최근 최대 환경문제로 부각된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롯데백화점의 3천여 협력회사와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친환경화를 롯데백화점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청에너지서비스 |

지난 4월 15일 사내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벌였다.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을 해 받은 헌혈증서는 난치병 환자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인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노조 창립기념일을 맞아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소망하는 임직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회사는 이밖에도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무상점검, 환경정화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암검진, 암은 멀어지고 웃음은 가까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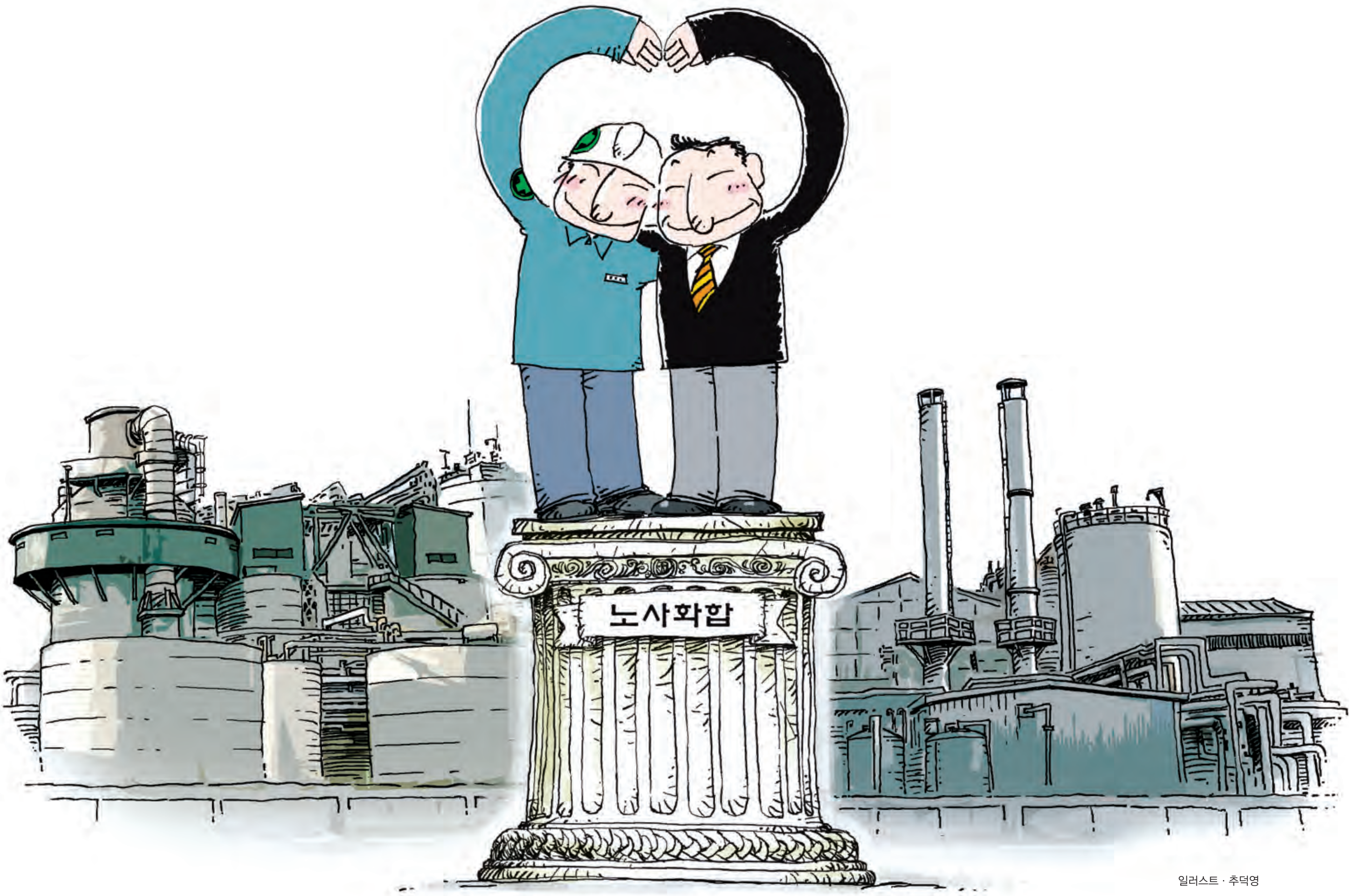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암검진으로 예방하세요

미루지 말고, 암검진!

보건복지콜센터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일러스트 · 추덕영

노사화합 이룬 기업 힘껏 밀어줍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상생을 위한 노사화합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정부는 노사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勞와 상생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후 일시휴업, 직업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수당, 훈련비 등이 일부 지원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재배치에서 50퍼센트 이상 재배치로, 월간 총 20시간 이상 훈련에서 12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했다.

문의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기업지원과

동아DB



임금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BS 취업지원센터'를 개관한 부산은행.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임금절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임금 감소액의 50퍼센트를 법인세 산정 때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올해 법인세는 내년 3월쯤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34)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올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가 3~10퍼센트 늘어난 일자리 창출 기업은 2010년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은 3퍼센트 이상, 이외의 기업은 5퍼센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면제 02-397-1803, 유예 02-397-1913)

중소기업 경영 · 금융 등 우대 지원

올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나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우대를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해당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 때 우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에 해당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지원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3)
기업금융과(042-481-4382)

유휴인력에 대한 숙련 제고

노동부는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루도록 3백개 중소기업에 87억원을 들여 기술전문가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인력개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와 임금(3만명 · 5백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인력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2천명 · 52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는 전문기술이나 경영혁신 분야의 교육비 전액과 임금의 일부(최저임금은 1백퍼센트)가 지원된다(2만명 · 1백69억원).

문의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02-2110-7265)

작업장 혁신 지원

정부는 기업 내부의 유연성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작업장 혁신 정책을 실시한다. 작업장 혁신 정책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기법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업장 혁신 컨설팅은 4월 중순,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은 5월, 작업장 혁신 교육은 6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www.kowincenter.or.kr)
사업운영팀(02-2096-4215~6)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 근로자 수 늘어난 일자리 창출 기업은 2010년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使와 상생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정부는 임금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액의 50퍼센트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내년 5월쯤 감면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



지난해 12월 24일 2008 노사 상생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전라남도는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3억원, 국제행사유치 및 지방교부세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은 내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2-2150-4151~54)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노사합의로 임금을 절감한 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이 임금삭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산정 특례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실업급여 산정 특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금 산정 특례에 대한 문의는 지방노동청(지청) 노사지원과로, 실업급여 산정 특례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로 하면 된다.

노사문화 대상을 받는 6개사는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은행융자나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사내 근로복지 지출 확대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한도를 늘려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후생복리비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비 지출을 확대한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누적 원금은 대출로만 사용됐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누적원금의 25퍼센트까지는 근로자 복지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해연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지출 한도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늘어난다. 이 역시도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혜택은 내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

노사상생으로 내실 다지고 상도 타세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노동부는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타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9월 중에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문화 실천요소(열린 경영, 근로자 참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성과배분제도,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작업장 혁신)를 비롯, △노사의 사회적 의무와 특징 있는 노사문화를 실천한 실적 등이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섭 및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대상을 받는 6개사는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는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은행융자나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지난해에는 모두 1백95개 기업이 신청해 94개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하이닉스반도체 등 11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는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등을 접수시키면 된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증진팀
(02-6670-3927~30 · www.nosa.or.kr)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부터 매달 '이달의 노사 한우리상'을 수여한다. 이달의 노사 한우리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과 양보교섭 등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어준 인물(노사 대표 등)과 단체(기업, 노조 등)를 격려하는 제도다.

지난 4월 6일 열린 제1회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시상식에서는 코오롱노동조합 김홍렬 위원장과 삼정피앤에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 첫 수상자인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 코오롱의 제10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존의 투쟁지향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2007년 '노사 상생 동행' 선언을 이뤄내는 등 '코오롱 구미공장의 기적'으로 불리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일궈왔다.

단체부문 수상자인 삼정피앤에이는 철강 원료 및 포장설비 업체로 기존의 '3조 3교대' 근무제를 '4조 2교대'로 혁신하면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으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하반기에 수여할 '노사상생 협력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심사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을 제정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상생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이라는 명칭은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한누리에는 △노사가 하나의 세상에 공존하다 △노사협력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노사협력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노사 상생협력 대상

노사 상생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현장의 노사문화 선진화 등에 기여한 기업, 노사대표 및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노사 상생협력 대상' 제도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노사 상생협력 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자치단체, 지역 유공자, 기업 및 노사 대표 등 5개 부문에서 훈장과 포장 16점을 비롯한 총 99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특히 노사민정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지역 노사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각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구시는 무엇보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의 구성과 내실 있는 분과위원회 등 혁신적인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한편 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날인 4월 30일 '근로자의 날 시상식'을 개최한다. 참석 예상 인원은 수상자 63명(훈장 23명, 포장 20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표창 2명,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2명)과 수상자 가족을 포함한 하객 2백여 명 등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레이저쇼, 샌드애니메이션 등 오프닝 퍼포먼스를 비롯해 노사협력을 주제로 한 감동영상물 상영, 축하공연 등도 선보인다. G

글 · 김지영 기자



지난해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영희 노동부 장관(왼쪽)이 삼정피앤에이의 노사 대표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말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노사 양보교섭 작년보다 5.6배 늘어"

노사민정은 지난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이를 성사시킨 노사민정 대책회의는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운영을 맡겼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바람직한 노사문화에 대해 들어봤다.

정경택 기자



• 서울대 화학공학과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라이스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중앙대 정경대 학장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2월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비상대책회의는 같은 달 23일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의문은 임금 안정, 고용 유지, 실직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김대모 위원장을 만났다. 조용하고 엄숙한 실내 분위기와 달리 김 위원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상대책회의 공동의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2·23 노사민정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노사정위원회가 운영하는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이 맡고 있다"며 "덕분에 비상대책회의를 통한 합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입장과 견해가 다른 노사민정이 뜻을 모으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2·23 노사민정 합의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3 노사민정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환위기 때 각 경제주체들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민정이 모였다는 데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의 주도하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아닌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노사민정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화합의 뜻을 다졌다.

동아DB

유지'나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나아가 노사민정이 합의문에 함께 서명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다지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민정 합의문에 의거해 지난 3월 6일 '2·23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이 구성됐습니다. 노사민정 합의사항이 실행되고 지역과 현장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각 주체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어요. 5월부터는 합의사항이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매달 이행점검단 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조정합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업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모두 법과 원칙 같은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노사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때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와 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는 임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고, 사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모색해서 각각의 역량과 국민적 의지를 한군데로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민정 합의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사측의 고용유지, 노측의 임금동결·반납·절감 등 노사 양보교섭이 현재 3백50건으로 전년의 5.6배로 늘었습니다. 지역단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선언이 잇따르는 등 노사민정 합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4월 20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민정 합의의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노사민정 합의가 그 취지대로 실현돼 하루라도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용촉진 등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는 위기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경제주체 간의 다양한 요구가 서로 조화롭게 충족되려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상대책회의 공동의장이자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공룡 GM은 왜 쓰러졌나?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련을 당당히 맞서 이겨내려면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최근 그릇된 노사문화로 몰락의 기로에 놓인 미국 GM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함께 상생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요즘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기업과 국민들은 언제쯤 이 불황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인 위기 극복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담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시사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위기 극복 후의 성장과 선진화라는 더욱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미국 상황을 보면 금융기관들의 부실경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자동차산업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듯하다. 자동차산업 노조가 임금 삭감, 복지 축소, 고용안정 포기 등 상당한 양보안을 내놓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도 강도 높은 자구 계획안을 제시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당했다.

GM의 경우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우량자산은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불량자산만 남은 기존 법인은 청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GM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아닌 거번먼트 모터스(Government Motors)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지금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미국 자동차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GM 경영진은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대정부 로비 등의 수동적 대응에 치중하는 등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자동차산업 노조는 강경한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후한 조건의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경영진과 노조는 그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조직 전체의 장기적 이익 추구보다 우선해 결과적으로 책임경영이 실종돼버렸다. 이러한 경영진과 노조에 의한 총체적 무책임경영은 GM의 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해내려면 상생게임으로 게임의 틀을 바꿔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들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반면 도요타, BMW, 폭스바겐 등 상생적이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경쟁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 경쟁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로서는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몰락을 한국 자동차산업의 호기로만 인식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나라 자동차회사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아DB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상생적이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생적 노사관계가 곧 미래경쟁력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기업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집단들이 조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제로섬게임에 치중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해내려면 제로섬게임이 아닌 상생게임으로 게임의 틀을 바꿔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틀이 대립적 배분게임에서 상생적 통합게임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업들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상생적 게임은 조직 전체의 가치창출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하고 창출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

는 게임의 룰을 말한다. 그러나 상생적 노사관계가 미래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잘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일까?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상생적 협상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투적, 배분적 협상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협상의 정의를 자신이 가진 협상무기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생적 협상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협조하고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는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생적 협상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상생적 협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상생적 노사협상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상생적 협상을 위해서는 협상 과정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입장 뒤에 내포된 진정한 이해관심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이러한 상생적 관계는 상호신뢰의 기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상호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양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진정한 이해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통해 구축된다. 상호신뢰를 토대로 한 상생적 노사관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투자자, 일반 국민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경제 기여하는 최선의 길

한편 미국정부와 국민들이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남에도 정부 자금지원에 반대하거나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섣부른 자금지원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며, 효율적인 상생적 노사관계는 정부의 책임경영 자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사 모두의 책임경영과 상생경영이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도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머릿속에 문득 바람직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잘 정착시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상생투자펀드'라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G

글 ·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 교수



동아DB

상생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려면 무조건적인 양보와 협조가 아니라 상호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운동도 산다

글 ·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



쌍용자동차가 전체 직원 10명 중 4명, 생산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감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은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한다.

쌍용자동차를 지켜보는 것은 노조나 경영진, 채권단, 주주 등 한국인들만은 아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기업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 한국은 정리해고가 쉽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공업이나 건설과 같이 불황의 골이 깊은 업종의 외국계 기업들은 노조의 움직임과 한국정부의 대응 태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 중 많은 회사가 올해 안에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일부 외국계 회사는 노조의 과격 투쟁과 한국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예 한국시장을 떠나겠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이번 불황의 끝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바짝 얼어붙은 상태다. 지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38.2퍼센트가 줄었다. 최근 5년 사이 최대의 추락 속도다. 이미 투자를 공언했던 기업들도 차일피일 계획 실현을 미루고 있다.

노사화합 도요타 vs 강성노조 GM의 엇갈린 처지

일부에서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매력이 부각되고, 그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매출이 많게는 70~80퍼센트 가까이 급감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회사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기업에나 종업원에게나 뼈아픈 선택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1950년대 초 구조조정과 총파업을 겪으면서 노사 대립이 회사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체득했다. 그 후 55년간 노사화합을 이루면서 무분규를 지속, 마침내 제너럴모터스(GM)를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반면에 강성 노조를 달래기 위해 선심성 복지 선물을 남발했던 GM은 50년 동안 이어온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았다. 최근에는 미국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회사의 존속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 중 상당수가 GM 같은 위기를 절감하면서도 '다 같이 망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노조활동에 당혹해하고 있다. 구조조정 계획을 무조건 전면 철회하라거나, 본사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하라는 노조의 주장을 외국기업 경영진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긴급 수혈을 해줄 여유는커녕 오히려 본사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외국기업의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면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회사가 존속할 때 노동운동도 의미가 있다. G

구조조정은 뼈아픈 선택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눈으로 전하는 사랑
길 건널 때는 눈을 맞추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수칙 하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맞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지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서로의 눈을 맞추고 확인하세요.
따뜻한 마음 넘치는 도로가 될 테니까요.

경 찰 청 도로교통공단

36만명 고용창출 '용산 역세권 개발'

힘모아 한국 랜드마크 만들어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해법 제시와 조정 등이 필요하다.



용산역세권 개발 조감도. 6백65미터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신라왕관을 형상화한 업무지구 등을 담아 서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제 부가가치 67조원, 고용창출 36만명의 초대형 사업이다. 개발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 4월 15일 마스터플랜 국제현상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아키펠라고21'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설계안은 6백65미터 높이의 랜드마크타워, 신라 왕관을 형상화한 업무지구 등을 담아 서울의 도시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월 말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용틀임'을 제지당한 형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곤란해지면서 토지대금 납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분(42퍼센트)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지분 25퍼센트)은 민간 주간사인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에게 토지대금 8천8백억원을 조속히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반면, 민간 컨소시엄은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PF가 불발된 상황이므로 부지 매도자이자 대주주인 코레일이 일정한 선에서 연장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현재 대금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 코레일의 연장 결정이 없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컨소시엄은 그동안 해결책 찾기에 부심했다. 주간사인 삼성물산 등은 토지대금 마련을 위해 출자사인 우리은행, 삼성생명을 주간사로 대주단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 7곳에 PF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골이 워낙 깊어 이들 금융권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등은 사업협약서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코레일 측에 토지대금 납부 2년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실물경기 침체로 자산가치가 20~30퍼센트 폭락한 만큼 양측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성공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산역세권개발은 눈앞에 닥친 8천 8백억원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흔들리면서 총 13조 5천억원에 이르는 PF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점을 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은 물러나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이 더 이상 위기로 치닫기 전에 초기자금 부담(땅값)의 열쇠를 쥐고 있는 코레일이 단순 토지 매도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특별법 만들어 지원하는데 한국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복합개발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관 협력사업이 벽에 부닥친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대형복합개발사업은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티격태격할 경우 사업 손실은 물론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 붕괴 때 도쿄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고 내각에 도시재생본부까지 설치해 지원했던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8년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전략회의에서 일본 경제를 살리려면 도시 재생과 토지 유동화가 급선무라는 '일본경제 재생전략'을 완성,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갔다. 2000년엔 도쿄와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의 도시가 '대도시 재생추진회'를 조직해 지원에 나섰다.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아예 모든 각료가 구성원이 되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도시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했다. 2002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의 자산과 노하우를 영입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이용 규제특례 적용, 행정절차 단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5년도 안 돼 열매를 맺었다. 2002년 도쿄역 앞 마루노우치빌딩을 시작으로 모리그룹의 롯폰기 힐스(2003), 시오도메와 오모테산도 힐스(2006), 미드타운과 신마루노우치빌딩(2007) 등 도쿄를 상징할 만한 초대형 빌딩들이 대형복합사업 시행으로 들어선 것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제 및 고용 창출효과가 역대 최대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사업(29조원 · 19만명)보다 2배 이상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문제 등은 작은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소모적인 논란을 떠나 토지대금 납부 연장을 통해 PF 재개를 추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와 청와대, 혹은 총리실 등이 막후에서 대승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대금 납부 연장을 통해 PF 재개를 추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대승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용적률 문제 등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제시된 용적률 6백퍼센트는 상업지구로서는 아주 낮은 것인 만큼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8백퍼센트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내 도시들도 '재생(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은 도시재생시대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탄탄대로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가시밭길을 가느냐에 따라 국내 도시재생사업도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용산역세권은 세계의 도시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물론 국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인 코레일, 서울시 차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G

글 · 김순환 문화일보 경제산업부 차장

10개월째 자전거 출퇴근… 이선의 씨 체험기

교통비 줄이고~ 체중 팍! 줄이고

일산 집에서 회사까지는 약 25킬로미터. 누구나 무리하지 않는 수준인 시속 20킬로미터 정도로 페달을 밟으면 1시간 10분 안에 회사에 도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통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셈이다.

지난해 6월 9일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집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회사까지 10개월째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왕복 50킬로미터쯤 되는 거리인데, 덕분에 10개월 전보다 몸무게가 9킬로그램 정도 빠지고 건강도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낀다.

자전거 출퇴근은 이번이 두 번째다. 9년 전인 2000년 봄부터 약 1년간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당시 양천구 목동 집에서 여의도에 있던 회사까지 왕복 약 25킬로미터를 주 6일간 자전거로 출퇴근했다. 목동 집에서 회사까지는 안양천과 한강을 따라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어 출퇴근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한 지 1년이 돼가던 2001년 초봄 우리 가족은 목동을 떠나 일산으로 이사했다. 자연히 자전거 출퇴근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초, 일산에 사는 회사 선배가 "내가 얼마 전 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이걸로 일산에서 서울 여의도 직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이선의(왼쪽) 씨는 10개월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한 덕에 건강도 좋아졌다고 한다.

"왜 못하겠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배는 이후 몇 차례 자전거 출퇴근을 시도해본 것 같았다.

하루는 "선배, 요즘도 계속 자전거로 출퇴근하시죠?" 라고 묻자, "아니 그게 말이지, 쉽지 않아. 약속도 많고. 하여간 자전거 출퇴근은 포기했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나는 "일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그리 힘든가? 까짓것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다. 9년 전 자전거 출퇴근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던 것 같다.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삶의 여유도

일산 백마역 앞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약 25킬로미터 거리다. 다행히 일산은 자동차도로를 피할 수 있는 농로가 잘 발달해 있다. 서울에 들어서면 한강과 안양천변에 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한 편이다. 이 코스를 이용하면 회사까지 갈 때 횡단보도를 두 번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출퇴근족에게는 안전하다.

게다가 언덕이 거의 없고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 누구나 무리하지 않는 수준인 시속 20킬로미터 정도로 페달을 밟으면 1시간 10분 안에 회사에 도착한다.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셈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보통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 물론 이 시간은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비도 아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하루 왕복 4천2백원씩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 달 20일을 출퇴근할 경우 8만원 넘는 비용이 든다. 결국 나는 지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의정부 인근 천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역시 '자출족'에게 꼭 필요하다(오른쪽).

10개월 동안 자전거 출퇴근으로 대중교통비 84만원을 절약한 것이다.

이밖에도 삶이 능동적으로 바뀐 듯한 기분이 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늘 정해진 코스만 왕복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골라 갈 수 있다. 간혹 택시를 타거나 출퇴근 때 버스를 타다 보면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방송만 억지로 들어야 하지만, 자전거에서는 음악을 듣든 시사방송을 듣든 모든 게 내 자유다.

아울러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자전거를 타면 늘 바람소리, 새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비나 눈을 직접 맞을 수도 있다. 가끔 여름 장마를 피해 숲 밖으로 나온 달팽이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소풍 나온 고라니, 이름 모를 철새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자전거 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엔 일산에서 행주대교를 지나 올림픽도로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이어져 있어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은 사정이 다르다.

자전거 출퇴근 위한 지원 따라야

현재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자전거는 대개 자동차도로나 보행자로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와 같은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보행자와 같이 움직여야 할지 헷갈린다. 자연히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자전거전용도로나 전용신호등 같은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확대 보급해줬으면 한다.

회사의 배려도 필요하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는 물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도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회사에는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출퇴근족들은 회사 근처의 사설 샤워시설을 이용한다. 회사의 작은 배려가 자전거 출퇴근 이용 활성화의 관건이다.

나의 자전거 출퇴근이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낀다.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 교통체증 없는 자전거 출퇴근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고유가시대를 이기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늘고 있다. 매스컴마다 자전거 타기가 일반화된 외국의 자전거 활용실태를 소개하며 우리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나의 자전거 출퇴근이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낀다.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 교통체증 없는 자전거 출퇴근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 제공

자전거 홍보대사 소녀시대 유리

자전거 타고 달려요! 눈이 부셔~ Gee G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시대'의 유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 'GEE'를 사랑해주셔서 유난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탤런트 한고은, 박은혜 언니와 함께 자전거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기뻤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의 밝고 건강한 웃음이 자전거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주셔서 더욱 신이 난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냐고요? 물론이죠. 어릴 때도 당연히 세발자전거를 탔지만요, 가수로 바쁘게 활동하는 요즘도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탈 정도로 좋아하죠. 어디 저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좋아하시고 자전거를 즐겨 타시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까지 밝아지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대해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바로 약 3백명의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일주 자전거 경주대회'랍니다.

전국일주 자전거 경주대회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출발해 수원, 인천, 춘천, 청주, 대전을 거쳐 전주까지 하나의 코스로 구간별로 달린 뒤, 두 개 코스로 나뉘어 각각 광주~목포~진주, 대구~울산~부산을 거쳐 5월 3일 창원에 동시에 골인해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부대행사로 공공자전거 대여 시연, 자전거 전시회, 다양한 축하 이벤트와 함께 '전국 자전거 타기 실천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 **"자전거는 환경, 에너지, 교통, 국민 건강에까지 도움을 주는 유익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도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행사기간 동안 각 거점도시에서는 '전국일주 자전거 경주대회' 개최일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자전거축제와 지역별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그때는 전국이 자전거의 물결로 술렁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의 핵심 키워드인 자전거 문화의 발전을 위해 동호인 전국투어와 지역별 자전거축제가 함께하는 범국민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셈이죠.

물론 저 유리도 이번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참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라면 "너무 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Gee Gee Gee"이겠죠? 저, 유리도 자전거처럼 늘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G

정리 · 김성주 객원기자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국립국악원 일요열린 국악무대
2009 SUNDAY OPEN CONCERT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우면산자락+
초록음악회
The Hillsides of Mt. Umyeon
Green Concert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야외공연장)
5월~9월 첫째 주 일요일 국립국악원을 찾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5월 3일 오후 3시 사랑 더하기
6월 7일 오후 3시 신명 더하기
7월 5일 오후 8시 웃음 더하기
8월 2일 오후 8시 열정 더하기
9월 6일 오후 3시 행복 더하기
문의 국립국악원 02.580.3300, 3333(ARS) www.ncktpa.go.kr
주최 국립국악원
후원 국악방송 KTV

사생활 보호하고 주민불편 줄인다

가정폭력 가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등 주민등록법 개정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자는 사회에서 어떤 보호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투표권, 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가 불명확한 주민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거주 불명자는 최종 신고된 주민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다.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가해자)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고, 이를 교부받지도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나 손자 등 직계비속은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민등록 초본만 교부받을 수 있고 등본은 교부받을 수 없다. 이혼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재혼한 아버지에 대해 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경우, 재혼한 아버지의 현재 처와 그 가족들의 정보까지 노출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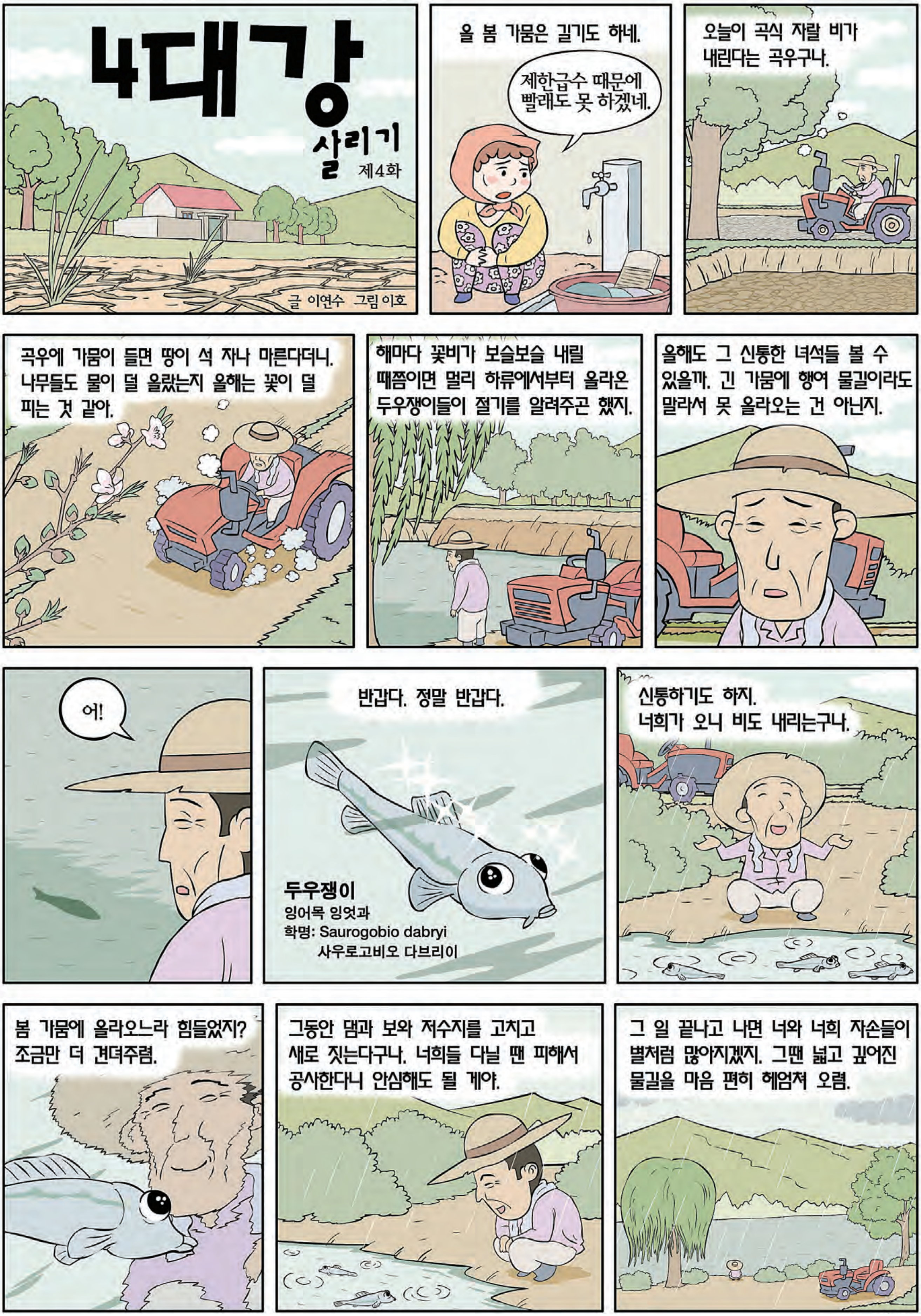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이전까지 가구주, 가구를 관리하는 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다. 또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해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도 추가로 신설된다.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만 처벌하게 돼 있는 것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G

글 · 이영래 객원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4대강 살리기
제4화
글 이연수 그림 이호
올 봄 가뭄은 길기도 하네.
제한급수 때문에 빨래도 못 하겠네.
오늘이 곡식 자랄 비가 내린다는 곡우구나.
곡우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더니. 나무들도 물이 덜 올랐는지 올해는 꽃이 덜 피는 것 같아.
해마다 꽃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쯤이면 멀리 하류에서부터 올라온 두우쟁이들이 절기를 알려주곤 했지.
올해도 그 신통한 녀석들 볼 수 있을까. 긴 가뭄에 행여 물길이라도 말라서 못 올라오는 건 아닌지.
어!
반갑다. 정말 반갑다.
두우쟁이
잉어목 잉엇과
학명: Saurogobio dabryi
사우로고비오 다브리이
신통하기도 하지.
너희가 오니 비도 내리는구나.
봄 가뭄에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조금만 더 견뎌주렴.
그동안 댐과 보와 저수지를 고치고 새로 짓는다구나. 너희들 다닐 땐 피해서 공사한다니 안심해도 될 게야.
그 일 끝나고 나면 너와 너희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겠지. 그땐 넓고 깊어진 물길을 마음 편히 헤엄쳐 오렴.

보따리상에서 CEO까지 오세영 '코라오' 회장

"젊은이여, 주저 말고 밖에서 기회 찾으라"

라오스에서 기업 '코라오'를 이끌고 있는 오세영 회장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한상(韓商)이다. 한국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그가 라오스에서 가장 큰 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강한 친화력을 지닌 오세영 회장은 인터뷰 내내 환한 웃음을 유지했다.

코리아의 '코'에 라오스의 '라오'를 더한 코라오(KOLAO) 그룹은 라오스 최대 기업이다. 코라오는 라오스에서 한국산 중고 자동차와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판매부터 금융, 운송, 에너지, 농업, 가전, 리조트 부문까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코라오그룹을 이끄는 주인공은 오세영 회장(48). 그는 라오스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이다.

지난 2월 6일 라오스 정부는 코라오그룹이 라오스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오 회장에게 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국가 최고훈장을 수여했다. 마침 그날은 코라오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인도차이나 뱅크'를 설립한 날이기도 했다.

그는 주목받는 한상(韓商)이기도 하다. 2007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젊은이는 주저하지 말고 밖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역설했다. 한국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그가 라오스에서 가장 큰 그룹을 이끌게 된 것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첫 해외 진출… 사회 변화 뒤처져 쓴잔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강한 근성을 지니고 있다. 쉬지 않고 열정을 토해내는 '에너지 덩어리'였다. 그의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그는 '내 사람을 만들 줄 아는' 강한 친화력의 소유자이다.

강원 삼척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그는 말술 실력이라 술자리에서는 늘 분위기를 띄우는 플레이 메이커 구실을 했다. 군 제대 후 들어간 곳은 코오롱상사. 그는 직장에서도 특유의 성취욕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일 잘하면서도 적이 없는 존재로 떠올랐다. 그가 코오롱상사에서 '날개를 퍼덕이던 시절'은 냉전이 붕괴된 시기와 겹친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8년 중국이 자본주의권과 경제 교류를 하겠다며 개혁개방을 하고, 1986년 베트남도 개방정책 '도이모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세계 최대 경제력을 지닌 미국과 전쟁을 벌인 전력 탓에 개혁개방을 했음에도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냉전체제가 무너져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자 베트남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취한 금수(禁輸) 조치로 미국과 친미 국가들이 계속해서 베트남과의 접촉을 회피해 베트남의 경제사정은 매우 힘들어졌다. 베트남은 심각한 생필품 부족을 겪게 된 것. 당시 이러





오세영 회장이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딛고 라오스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중고차 수입판매였다(왼쪽). 오세영 회장이 라오스 전역에 심은 자트로파는 열매를 말린 후 짜면 바이오 디젤의 연료를 만들 수 있다.

한 물자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었다.

이를 간파한 그는 1991년 서둘러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고는 베트남에 한국산 생필품을 공급하는 보따리 장수로 변신했다. 이 선택이 큰 성공을 불렀다. 쓰레받기에서 중고 자동차까지 베트남은 모든 생필품을 빨아들였다. 덕분에 그는 한 달에 두 번 베트남행 배를 띄워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무역인이 됐다. 이렇게 신나는 질주는 1993년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맺어 적대관계를 접고 평화관계로 들어서면서 급반전했다.

1억 인구를 가진 베트남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자 거대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던 자본주의권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든 것이다. 이들은 신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는 공해 문제를 일으킨다'며 베트남 정부에 금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수용해 중고차 금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에서 누가 값비싼 신차를 사겠느냐'는 생각에 계속해서 중고차를 공급했다. 이 뚝심이 빛을 봤으면 좋았으련만 그가 수입한 중고차는 불법 판정을 받아 팔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날리고 몸만 빠져나와야 했다.

조직 성패는 구성원의 비전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

그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베트남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은둔의 나라' 라오스로 들어가 유사한 무역을 시작했다. 라오스는 조용한 불교국가여서 베트남처럼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쓴맛을 봤기에 라오스 정부의 선택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한국산 중고차를 수입해 팔았다.

생필품 공급이 안정되면 다음은 국가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간다.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우고,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은행과 주식시장 등을 만든다. 그는 라오스의 발전에 맞춰 시멘트 공장을 짓고, 은행을 설립하고, 라오스 주식거래소 개설에 참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걸었던 것과 비슷한 '발전의 길'을 라오스에서 걷게 된 것이다.

최근 그는 라오스에서 '바이오 연료 제조창'을 발견했다. 자트로파라는 나무의 열매를 짜서 가공하면 바이오 디젤유가 되는데, 라오스의 자연환경은 자트로파 재배에 적격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바이오 디젤유는 배럴당 국제 유가가 35달러 이상이면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그는 농업국가인 라오스 전역에 자트로파를 심으면 자신뿐 아니라 라오스 전체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단을 한 라오스 정부는 즉각 그에게 제주도보다 넓은 땅에 자트로파를 심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무역가에서 사업가, 금융가를 거쳐 그는 한순간에 라오스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농부'가 된 것이다.

농부가 된 그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 1백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희사했다. 이는 라오스 역사상 가장 큰 기부였다. 이로써 그는 돈만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발전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경쟁자들의 질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과거가 있기에 그는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조직의 성패는 리더와 구성원이 어떤 비전을 얼마나 강하게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희망과 에너지가 있으면 난관은 돌파할 수 있다."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답답한 시대, 활로를 한국에서만 찾을 이유는 없다. 한국의 경험이 필요한 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제2의 오세영'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화상(華商) 못지않은 거대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한국의 경제 영토는 무한대로 넓어질 것이다. G

글과 사진 ·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진행자 김성경 아나운서

"藝人의 삶에서 열정 배우지요"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들의 열정적인 삶과 철학적 사색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외고집 인생을 걸어온 각 분야 예인(藝人)의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진행자 김성경 아나운서를 만났다.



김성경 아나운서는 인터뷰를 통해 문화인들의 열정과 추진력을 배운다고 말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와 문화계 인사들의 육성 고백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화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6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화가 박항률, 가야금 명인 황병기, 연출가 오태석, 건축가 승효상, 배우 조재현, 연극배우 박정자 등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인물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를 만나게 된 건 행운이죠. 초대 손님과 대화할 때마다 그 감성과 뜨거운 열정에 매번 놀라고 감동받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지요."

프로그램 진행자인 아나운서 김성경 씨의 말이다. 그는 1993년 SBS 아나운서로 입사해 줄곧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다 2002년부터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해왔다. KTV와는 지난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과 법령 정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아하! 그렇군요'라는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속내 드러낼 때 보람… 최고의 인터뷰어 되고 싶어요

"정보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 인터뷰만큼 흥미롭지는 않죠. 특히 자신의 재능으로 일가를 이룬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는 인터뷰어로서 자신의 장점으로 '잘 듣는 것'을 꼽는다. 항상 시청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를 염두에 두고, 초대 손님의 가장 열성적인 '팬'이 되어 이야기를 듣는다. 주의 깊게 듣다보면 남들은 놓치거나 미처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엔 섭외에 마뜩잖아했던 분들이 막상 나와서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하는 건데…'라고 말하곤 해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속내를 드러낼 때 방송 하는 보람을 느껴요."

그가 꼽는 최고의 초대 손님은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과 가장 최근 출연한 문훈숙 유니버셜발레단 단장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발레리나의 양대 산맥이다. 그는 그 이유로 겉으로 보면 가냘프기만 한 그들이 내보인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을 꼽았다. 예술가 개인의 성공에 자족하지 않고, 후진 양성과 예술행정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분들의 열정을 본받아 저도 최고의 인터뷰어가 되고 싶어요. 언니를 따라 연기를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도 받았지만, 무리하거나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친언니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성령 씨다. 그러다 보니 연기에 대한 유혹도 많았을 법하다. 후배 아나운서들이 너나없이 '예능'에 뛰어들 때도 그는 아나운서의 본분을 지켰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그리고 오래도록 하는 것, 또 사회와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문화인들과 만나면서 얻어낸 배움의 내용이자 그 자신의 좌우명이 됐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

토크와 다큐멘터리로 문화 쉽게 파헤치기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앞에는 토크멘터리라는 용어가 붙는다. 토크멘터리란 토크(Talk)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합성어. 담당인 이병용 PD는 "한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에 더해 대중에게 친숙한 토크라는 형식을 접목했다"고 설명한다.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은 네 개의 코너로 진행된다. '현장'에 출동해서 주인공의 작품세계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오프닝'으로 시작해 주인공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생각 여정(旅程)', 주인공의 문화에 대한 철학을 감각적인 카메라 워킹에 담아내는 '두 번째 생각 열정(熱情)', 영상 에세이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이 PD는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된다고 해도 그 나라에 문화를 키울 수 있는 토대가 없다면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프로가 시청자 모두에게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값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볼만한 프로그램

파워특강 | 매주 월요일 17:30~18:20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최고 리더들과 만난다. '파워특강'은 시청자들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을 선정해 전문가들의 명쾌한 해설과 진단을 들어보는 특강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읽어내는 법을 제시한다. 5월 4일(월)에는 〈다윈의 식탁〉의 저자인 장대익 동덕여대 교수가 출연해 진화론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청년세대 실크세대 | 매주 목요일 16:00~16:50



취업전쟁에 뛰어든 청년 구직자들과 창업자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담아낸 프로그램. 손수제작물(UCC) 이력서를 통해 구직 희망자를 선정해 중소기업 일일 인턴 체험을 하게 하는 'job아라! 희망 중소기업', 2030 젊은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주목! 실크세대',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내일을 향해 쏴라', 구직정보를 맛깔스럽게 다룬 '안상태의 TIP! TIP! TIP' 등의 코너가 있다. 개그맨 안상태 씨(사진 왼쪽)와 손문선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내 마음의 고백 | 매주 금요일 20:40~21:20



사회 저명인사와 평범한 시민들이 저마다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고백'이란 형식으로 드러내어 상처를 치유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려가도록 한 휴먼토크 프로그램.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진솔한 입담으로 진행된다. 5월 1일(금)에는 '암을 지키는 돈키호테'로 불리는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이 출연해 암 전문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사연을 소개한다.

2030세대는 왜 장기하에 열광할까

홍대 앞 카페서 열린 '젊은 문화포럼' 난상토론 한마당

매주 수요일 2030 젊은이들이 모여 참신한 문화비전과 문화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전문가, 현장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패널들이 펼쳐 보이는 유쾌한 문화 난장 '젊은 문화포럼'이 그것이다.



4월 15일 홍익대 앞 KT&G 상상마당에서 열린 '젊은 문화포럼'. 패널들은 3시간여 열띤 자유토론을 통해 문화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젊은 문화포럼'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젊은 문화포럼'은 2030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난상토론 마당이다. 정진홍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물론 방송작가, 큐레이터 등 20~30대 젊은 문화인들, 문화체육관광부 내 젊은 정책 담당관, 일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4월 15일 서울 홍익대 앞 KT&G 상상마당 6층 카페에서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젊은이는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언제 감격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유원준 웹진 앨리스온 편집장은 "2030세대는 가상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코드 속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며 '우결'(우리 결혼했어요)이나 '패떴'(패밀리가 떴다)을 예로 들었다. "'우결'의 정형돈, 태연 커플은 대중에게 '나도 태연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유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상현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곤란하다"는 것이 유 씨의 주장.

자유토론 후 방청객 질의… 정책보고서 발간도

정민아 부산대 외래교수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낙오자가 되는 현실에서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나 독립영화 '낮술' 등의 콘텐츠가 나왔다"고 분석하며 "최근 흥행몰이를 한 '과속스캔들'이나 '워낭소리' 등 비주류 문화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10대 미혼모나 농촌문제를 비틀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어냈다.

음악평론가 강태규 씨는 음악성보다 비주얼에만 집중하는 대중음악의 위기에 주목하며 "음악적 진정성을 갖춘 뮤지션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작가 김윤경은 전통적인 미남 연예인 대신 망가지는 꽃미남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하며 "시청자들은 꾸며낸 거짓보다 발가벗겨진 진실을 더 선호한다. 이는 2030세대가 진실로 요구하는 건 진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동국대 영화학과 대학원생 송경원 씨는 "요즘 세대는 실제 경험보다 가상 경험에 더 익숙하다 보니 실제 삶과의 간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제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가상의 경험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시간여 진행된 열띤 토론을 '청중' 자격으로 지켜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있는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적었는데,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갖겠다"면서 "포럼에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발표자 없이 7~9명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번 포럼의 특징. 포럼 뒤에는 20~30명의 젊은 세대 방청객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젊은 문화포럼'은 전문가는 물론 젊은 문화인들, 문화체육관광부 내 젊은 정책담당관, 일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젊은이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문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회 포럼이 끝난 뒤에는 주요 내용이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시되며, 정책보고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젊은 문화포럼'은 앞으로 8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방청 희망자는 e메일(jschung2@kcti.re.kr)로 신청하면 된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 제공

'젊은 문화포럼' 일정표

일정	내용	장소	토론자
4.29	2030 젊은이에게 정신문화는 있는가	대학로 일석기념관 6층 세미나실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성화(문화연구가), 김진희(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 사무관), 문정현(다큐멘터리 감독) 신광철(한신대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 장해라(문화콘텐츠 박사과정), 정진홍(서울대 명예교수)
5.6	꿈을 향한 문화계 젊은이들의 도전과 이야기	대학로 일석기념관 6층 세미나실	김지나(촉각예술센터 빛을 만지는 아이들), 김태황(문화교육전문가), 노현지(문화기획자) 이상훈(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이영아(문화부 전략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신(문화부 공연예술과 사무관)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주일우(문지문화원)
5.20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와 놀자리	대학로 장 카페	권영옥(문화복지협의회), 김민정(국립극장), 김은숙(충무아트홀 홍보마케팅부 차장) 박소정(문화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신종필(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상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준(연출가 겸 배우), 전성환(서울아트스쿨)
5.27	생활 속 공공디자인과 도시, 젊은이	대학로 장 카페	강동진(문화부 디자인공간문화과 사무관), 김영섭(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고기영(비트로앤파트너스) 류인철 (메카조형그룹), 신혜원(로칼디자인), 손미경(문화도시경영연구소), 이광준(서울도시갤러리추진단 큐레이터), 윤양수(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사무관)
6.3	커뮤니티 아트와 젊은이 그리고 지역사회	대학로 소극장	김영현(유알아트 대표), 김효린(설악산 국립공원), 우지연(한국문화의집협회), 이창환(사람과 마을) 이혜림(문화부 지역문화과 사무관), 전민규(큰돌문화예술센터), 정익주(장흥군 문화관광과), 하윤진(문화부 문화정책과 사무관)
6.17	대한민국 미래문화를 예측하는 제3의 시각	서교자치회관 3층 대강당	강지은(문화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김유빈(이화여대 경영학과 재학), 김윤정(연세대 영문학과 재학) 류재현(상상공장 기획자), 서아현(이화여대 국제학부 재학), 오남숙(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이승엽(미디어솔루션 해외영업부), 최규철(월드디제이페스티벌)
6.24	온라인 문화활동의 가치와 미래영역	북촌 진선북카페	강민아(문화부 게임산업과 사무관), 김성은(문화부 전략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중태(IT평론가)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방대욱(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소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7.1	21세기 국제교류와 문화적 이슈	홍대 앞 북카페 '창밖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고영직(한국작가회의), 김승근(통영국제음악제), 남찬우(문화부 국제문화협력과 사무관) 명수현(문화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신현진(쌈지스페이스), 이규석(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임센터장), 우연(예술경영지원센터), 홍기원(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염하에서 가장 좁은 물목인 손돌목을 지키는 용두돈대.

강화 갑곶 ~초지진 호국의 현장

요새-토성 이어진 바닷길 역사의 함성 전하는 물의 바람

흔히 강화도를 '역사의 땅, 눈물의 섬'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강화도만큼 외적의 침략이 잦았던 곳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서해안 중간쯤에 자리한 강화도는 고려와 조선의 도읍지이던 개경과 한양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외침으로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항쟁의 거점이 되곤 했다. 이는 도읍지와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한 해 농사로 몇 해 동안 먹고 살 정도로 풍요롭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하지만 침략자들에 의해 천혜의 방어선인 염하(鹽河·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좁은 물길)가 뚫리거나 강화성이 함락될 때마다 살육과 약탈의 광풍이 온 섬을 휩쓸었다.

조선 후기 들어와 강화도는 섬 전체가 군사요새로 탈바꿈했다. 모두 12진·보와 53돈대, 9포대가 해안 곳곳에 설치됐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던 갑곶돈대, 광성보, 용두돈대, 덕진진, 초지진 등은 모두 강화 동쪽의 염하 해안에 자리한다. 맨 북쪽의 갑곶에서 남쪽 초지진 사이의 약 13킬로미터 구간에는 왕복 2차로의 해

안도로가 개설돼 있다. 자동차로 달리면 드라이브의 묘미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짧은 길이다. 하지만 역사유적 답사를 겸한 걷기여행을 즐기기에는 최적의 코스로 꼽을 만하다. 예닐곱 시간이 소요될 정도의 전체 길이도 적당하고,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 비탈길이 거의 없는 데다 시종 바다를 끼고 있어 가뿐히 걸을 수 있다.

신미양요 순국용사비 앞에 절로 고개가…

염하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걷기여행은 강화역사관(032-930-7077)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다. 바로 옆의 바닷가에는 갑곶돈대(사적 제306호)가 있다.

갑곶이 우리 역사의 주요 무대에 등장한 때는 고려시대 몽고 침략기였다. 처음에 몽고 침략군과 화친을 맺은 고려 무신정권은 몽고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자 전면전을 각오하고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겼다. 이후 삼별초군을 앞세운 고려는 강화도를 근거지로 삼아 39년 동안이나 대몽항쟁을 계속했다. 강화성의 튼실한 방비와 염화수도라는 천혜의 방어선 덕택이었다. 수전(水戰)의 경험이 거의 없던 몽고군은 갑곶 건너편 문수산성에서 물끄러미 이 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 병자호란(1636) 당시에도 강화도는 항쟁의 근거지로 활용됐다. 하지만 강화도 수비대장을 맡은 김경징이라는 자가 갑곶을 비롯한 강화도 해안의 방비를 소홀히 한 탓에 곧바로 청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갑곶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앞다퉈 우리 땅을 넘보던 조선 말기에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병인년(1866) 9월 6일, 프랑스 함대의 로즈 제독은 전함 7척을 이끌고 갑곶진에 상륙했다. 이틀 만에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학살과 방화, 노략질을 일삼았고 외규장각 도서들도 빼앗아갔다.

갑곶돈대 남쪽 바닷가에는 나지막한 토성이 이어진다. 바로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이다.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되는 이 외성은 고려의 대몽항쟁 때인 1233년 적북돈대에서 초지진까지 약 23킬로미터에 걸쳐 축조됐다. 조선시대에도 강화 해안의 방어를 위해 강화외성은 계속 보수하거나 개축했는데, 오두돈대 부근에는 영조 18년(1742)에 벽돌로 쌓은 전축성의 일부가 남아 있다.

갑곶에서 남쪽 초지진 구간은 자동차로 달리면 드라이브의 묘미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짧은 길이지만, 역사유적 답사를 겸한 걷기여행을 즐기기에는 최적의 코스로 꼽을 만하다.

갑곶에서 초지진 사이의 염하 해안에는 근래 새로 축조된 제방도 많다. 제방 길은 대체로 들꽃이 철따라 피고 지는 맨땅이거나 잔디와 억새 따위로 뒤덮인 풀숲 길이다. 제방 아래 갯벌에는 넓은 갈대밭도 형성돼 있다. 13킬로미터의 전체 구간 중 적어도 10킬로미터 이상은 복잡하고 딱딱한 포장도로 대신 한가롭고 부드러운 흙길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광성보와 덕진진에서는 조붓한 산길도 지나게 된다. 길이 편하고 풍광이 아름다워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강화도 동쪽 해안의 국방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광성보(사적 제227호)다. 평양 대동강에서 발생한 '셔먼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사건의 현장인 초지진(왼쪽), 원형경기장처럼 둥그런 모양의 오두돈대.



1



3

호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관련자 처벌을 조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던 미국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종 8년(1871) 군함 5척과 해병대 1천2백명을 이끌고 마침내 조선 침략을 감행했다. 이른바 신미양요를 일으킨 것이다.

광성보 전투에 대해 한 미군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조선 군대의 용기는 놀랄 만하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장렬하게 전사한 조선 군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 군함이 강화도로 접근하자 갑곶진,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지를 지키던 조선군은 맹렬히 포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조준조차 되지 않고 포탄이 터지지도 않는 홍이포와 소포로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할 수 없었다. 결국 광성보를 지키던 어재연 장군과 그 휘하 조선군은 대부분 전사했다. 또한 중상을 입고 생포된 20여 명을 빼고는 단 한 사람의 투항자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광성보 전투에 대해 한 미군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조선 군대의 용기는 놀랄 만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손으로 대항하는가 하면, 생포되지 않으려 물에 떨어져 죽거나 자결하고 부상자는 우리에게 흙을 뿌렸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장렬하게 전사한 조선 군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강화 제일 남장포대 들러 초지진까지

신미양요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광성보에는 3개의 돈대가 있다. 다리미 모양의 아담한 광성보돈대, 염하 쪽으로 용의 머리처럼 길게 뻗어나간 용두돈대, 광성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자리한 손돌목돈대다. 그중 용두돈대는 강화도의 돈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광성보돈대에서 용두돈대로 가는 길가에는 신미양요 당시 순국한 어재연, 재수 형제를 기리는 쌍충비와 무명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순국무명용사비가 세워져 있다. 그 아래의 양지바른 기슭에는 무명용사 51명을 7기의 분묘에 합장한 신미순의총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광성보에서 덕진진으로 가는 길에서는 줄곧 바닷가의 제방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갯벌 위로 걷기 좋은 석축까지 놓여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다. 신미양요 때 미군과 가장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던 덕진진(사적 제226호)에는 강화 제일의 포대였다는 남장포대가 남아 있다. 그리고 덕진돈대 아래의 바닷가 언덕에는 '海門防守他國船愼勿過'(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 · 바닷길을 막았으니 타국 배들은 통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경고비가 세워져 있다.

덕진진에서 초지진까지의 거리는 2.8킬로미터로 한달음에 닿을 만큼 가깝다. 초지진은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뿐


2

아니라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의 역사적 현장이다. 1875년 여름, 일본 군함 운요호는 '조선의 동해, 서해, 남해안에서부터 청나라 우장까지 항해 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을 돌아 초지진 앞바다에 정박했다. 운요호 함장은 20여 명의 해병대를 보트에 태워 초지진으로 상륙하게 했다. 음료수를 구한다는 구실이었다. 하지만 보트가 초지진의 영문과 포대 앞을 지나려 할 때 조선군이 포격을 가했다. 당시 조선은 두 번의 양요를 겪은 터라 사전통고 없이 강화해협에 접근하는 외국 선박을 가만둘 리 없었다.

초지진의 포격으로 보트는 물러갔으나 운요호에서 응사해 진과 포대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때 초지진의 재래식 대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한 발도 적함에 명중되지 못했다고 한다. 초지진을 파괴한 운요호의 함장은 해병대를 상륙시키려 했으나 수심이 얕아 보트를 해안에 댈 수 없었다. 대신 인근 황산도에 불을 질러 민가를 태우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운요호는 영종진에 함포 사격을 퍼부은 뒤 해병 22명을 상륙시켜 영종진을 점령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전권대신을 파견해 협상을 강요했는데, 전권대신은 전함 2척과 수송선 3척에다 4백여 명의 해병을 거느리고 강화도의 갑곶진에 상륙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신헌을 파견해 협상에 응했고, 이른바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됐다.

이렇듯 강화도, 특히 동쪽의 염하 해안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흩뿌려진 역사유적이다. 그래서 여느 관광지나 유원지처럼 마냥 들뜬 기분으로 돌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기 때문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 여행작가

1 용두돈대 가는 길가의 신미순의총. 신미양요 당시 순국한 무명용사들의 합장묘다.
2 강화 제일의 포대였던 덕진진 남장포대.
3 근래 복원된 용진진과 돈대.

여행 정보

숙박 갑곶에서 광성보와 덕진진을 거쳐 초지진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주변에는 바다산책모텔(광성보 입구, 032-937-3040), 파레스모텔(갑곶 입구, 032-934-5220), 블루모텔(초지리, 032-937-5303), 초지타운모텔(초지리, 032-937-3011), 웨스트우드펜션(초지삼거리, 010-9065-3594), 초지너머펜션(덕진진 부근, 010-5545-6397) 등의 숙박업소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맛집 갑곶에서 초지진 사이의 해안도로변에는 오두돈대장어(032-937-8592), 별미정(032-932-1371), 수연장어(032-933-8292) 등 장어구이 전문점이 늘어서 있다. 갑곶 아래 선원면 신정리 더러미마을은 아예 마을 전체가 장어구이마을을 이룬다. 초지진 인근의 대선정(032-937-1907)은 시래기밥, 메밀칼싹둑이 등 별미를 내놓는 맛집이다. 초지대교 아래 황산도어판장에는 강화도의 별미인 밴댕이 회와 각종 생선회를 비교적 저렴하게 내놓는 횟집이 밀집해 있다.


오두돈대장어의 민물장어구이

가는 길 **승용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48번 국도)→강화대교→강화대교 교차로→갑곶돈대 주차장
군내버스 갑곶↔더러미 장어마을↔광성보↔덕진진↔초지진↔황산도↔온수리 등을 경유하는 해안순환버스가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매일 06:20~20:50 사이 11회 운행한다. 문의 선진버스(032-934-9105)



이집트 미라 보여줄까 한국음악극 들려줄까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의 이집트 고대유물 2백31점을 특별기획으로 전시하는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를 개최한다. 총 4부로 구성된 본 전시는 각각 신과 왕,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하고 있다. 3천년 이상 이어져온 이집트 문명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 '이집트의 신'과 2부 '신의 아들 파라오'에서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파라오를 통해 이집트의 절대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3부 '이집트인들의 삶'과 4부 '영원에 이르는 길'에서는 일반 백성들에 관해 다룬다. 특히 3부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을, 4부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죽음과 내세관을 보여주는 부장품과 미라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오디오가이드를 통한 전시 설명을 곁들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팀이 개발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전시기념 특별강연회, 이집트 문화 연속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 김동우 학예연구사는 "세계 문명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페르시아전에 이어 이번에는 이집트전을 기획했다"며 "전시품과 연계된 실습과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4월 28일(화)~8월 30일(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성인 1만원, 중고교생 9천원, 초등학생 8천원, 유아(생후 48개월 이상) 5천원, 65세 이상 3천원
문의 02-2077-9199 www.egypt2009.kr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Ägyptisch-Orientalische Sammlung

오케스트라로 듣는 한국음악극 '심청전'

일시 5월 2(토)~9일(토).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오후 4시, 5월 4일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1대 심청 김지숙, 박애리에 이은 2대 심청 서진실은 공개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박에 주연자리를 꿰찬 신예다.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왕기석과 함께 새롭게 합류한 임현빈, 남상일이 풋풋한 심봉사를 담아낸다. 프리마돈나 안숙선과 유수정, 염경애가 도창을 맡았으며 중견배우 이영태가 왕 역으로, 김형철이 도사공 역으로 보강돼 5월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40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풍부한 선율의 음악과 소리꾼의 농익은 소리, 지름 16미터의 회전무대가 연출하는 인당수 장면은 놓쳐선 안 될 요소다.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일시 5월 2일(토)~5일(화) 오후 1시, 4시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02-580-3300 www.ncktpa.go.kr



제주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무속신화 '원천강 본풀이'를 바탕으로 우리 음악과 연극, 춤 등을 접목한 작품. 주인공 오늘이가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시간의 소중함과 사랑, 나눔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준다.

8회 공연 중 5월 4일 오후 4시 공연은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3백명을 선착순으로 받아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팩스로 신청한 후 좌석을 지정받으면 된다. '오늘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 현 빈

구비서류 없는 민원처리

e 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국민들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1종)

주민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특허**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법무**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복지/보훈**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자동차/선박**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세금**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교**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병무** : 병적증명서 **상훈** : 상훈수여증명서 **노동**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 단,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민원인이 사전에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국민연금공단 등 50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부동산 ·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 방문 · 전자신청
- 신청내용 심사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지급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